

제주4·3사건진상규명운동과 노래운동의 사회적 의미

현 혜 경*

국문초록

1980~1990년대 한국사회에 나타난 문예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담론투쟁 창구이자,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통로였다. 2000년대 들어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문예운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면서 그동안 유실되었던 문예운동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였던 문예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독 4·3사건 관련 노래운동은 자료 수집의 난항으로 연구와 분석에서 진척이 더디었다.

특히 제주4·3사건진상규명운동이 진행되었던 10여 년 동안 150여곡 이상의 4·3사건 관련 창작곡이 발표되었으며, 진상규명운동의 중요 담론매체로 활약하였음에도 그것에 대한 평가는 거의 존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을 목표로 하였다. 첫째, 노래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궤적을 정리하는 것이며, 둘째, 제주4·3사건진상규명운동에서 노래운동의 활약상을 조망함으로써, 담론 및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자료 수집 및 연구결과 4·3사건 관련 70여곡의 곡명을 찾을 수 있었으며, 미흡하지만, 창작곡 30여곡의 악보도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래운동의 계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노래운동의 주요 수행 주체와 수행 형식, 수행 담론 등을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담론 매체에 비해 20~30대 낮은 연령과 비전문적인 수행 주체들의 위치는 4·3문예운동의 역학관계에서 노래운동에 대한 평가를 탈각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 4월의 비극성과 현재의 4월을 연결하는 상상공동체를 창조함으로써, 담론의 유포와 탈구조공동체 코뮤니타스(communitas)의 역할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 강력하였다. 또한 다른 매체들과 달리 항쟁 및 학살과 같은 주요 담론들의 하위에 필요한 언어들을 동원하여 다층적 담론의 위계질서를 형성하는 특성도 드러났다.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syaron@hanmail.net
이 논문을 심사하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까지 파악되지 못하였던 제주4·3사건진상규명운동 시기의 노래운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4·3사건 관련 문예운동에서 탈각되었던 노래운동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4·3문예운동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중심어 : 4·3사건, 노래운동, 진상규명운동, 문예운동, 담론

I. 서 론

1. 문제의식

20세기 말 21세기 들어 근대 사회에 대한 반성적 사회 분위기는 역사적으로 망각되어져오거나 왜곡되어져 온 사건들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대항담론의 형성에는 다양한 담론 매체들이 동원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활동(이하 문예활동)은 대항담론 형성의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문학, 미술, 영상, 음악, 연극, 의례 등 시청각적 예술행위는 고착화된 담론을 허물고, 새로운 담론투쟁 공간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역사를 새롭게 작성하는 정치적 공간이 되었다.

한국사회 민주화운동과정에서도 문화예술운동(이하 문예운동)은 담론 투쟁의 공간으로 활약하였으며, 이 문예운동은 변화무쌍한 예술적 형식을 빌려 기존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대중들의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기억을 환기시키고, 그들의 정서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지적 활동의 한 측면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예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 연구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그 연구가 많지 않았다.¹ 다행히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이런 문예운동에 대한 연

1 한국 민주화운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그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치, 사회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구가 수행되어 그동안 유실되었던 문예운동의 자료들이 다시 수집, 정리되고,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였던 문예운동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문예운동에 대한 조명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한 차원이라는 큰 줄기 속에서 파악되었으며, 특별히 1980년~90년대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되어졌다. 이 시기 문학, 영상, 사진, 미술, 음악, 무용, 의례, 연극, 언론 등 한국 문화예술계 전 분야에서 나타난 문예운동들은 민주화 담론투쟁 창구이자,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통로로 분석되어졌다. 이 시기 문예활동에 대해 나간채(2004)는 과거를 죽은 과거로 치부하지 않고 살아있는 현재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문화적으로 옷을 입히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1980~90년대 한국 문예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일부이자 동시에 유례를 찾기 힘든 문화적 창조의 과정으로 보았다.² 그리고 그 문예운동의 중심에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현이 놓여 있다고 보았다.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현은 문예운동의 중심에 서서 과거청산과 복원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는데, 문예운동에 대한 조명은 각각의 역사적 사건과 경험이 어떤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과거청산 문제를 이끌어내었으며, 그 사회적 효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문예운동이 발생한 지역 및 공동체의 역사·문화적 배경, 역사적 경험의 차이, 문예운동 생산 주체들의 역학관계, 담론주체의 지속적 생산과 계승, 담론매체들 간의 특성 차이 및 경험과 탈각 등으로 그 특수성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님을 위한 행진곡’과 영정을 들고 있는 소년 사진이 5·18민주화운동의 담론투쟁을

2 나간채(2004)는 문화운동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는 문화적 재현 메시지가 승리를 담보할 강력한 저항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이를 실현시킬 잠재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일으킨 중요한 매체였다면³, 4·3사건의 경우는 소설 『순이 삼촌』과 무흔굿 등과 같은 의례재현이 담론 투쟁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또한 5·18에서 신문만평 등이 주요하게 활약할 때, 4·3 사건과 관련한 신문만평은 동시대에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운동(이하 4·3진상규명운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10여 년 동안 150여곡이 넘는 4·3사건 관련 창작곡이 발표되었음에도 오래지 않은 시간 안에 상당수 4·3사건 관련 노래운동 자료들은 유실되었고, 다른 매체에 비해 그것에 대한 평가는 거의 존재하지 못하였다. 노래운동의 경우 탄압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로 생산자들의 이름이 오기되거나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초적 자료 유실은 더욱 급속히 이루어졌다. 전체 4·3문예운동에 대한 평가 및 연구에서 4·3노래운동은 거의 제외되어 있는 편이다.⁴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그 간의 자료 수집 결과를 통해 4·3노래운동의 역사적, 사회적 궤적을 정리하는 일이며, 둘째, 노래운동이 4·3진상규명운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약하였는지, 담론투쟁의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4·3문예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담론 매체들 간의 결합 및 역학관계에서 탈각되었던 이유를 분석하는 것으로 4·3문예운동의 특수성 일부를 밝히고자 하였다.

3 나간채(2004: 14)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한편의 노래가 항쟁의 기억을 압축적으로 보존하고 재생산했다고 보았다. 이 노래가 항쟁의 대열에서 대중들에게 부여하는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4 이제까지 4·3노래운동에 대한 조명은 이은나(2004, 2006)의 고찰을 빼고는 거의 없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초적 자료인 4·3노래운동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턱없이 어려운 데서 기인하고 있다. 노래운동 자료들은 다른 매체들에 비해 그 자료유실이 크고, 생산 및 계승 주체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이 애를 먹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식은 문예운동 중 노래운동이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논의로부터 자원을 얻고 있다. 하나는 음악과 근대 사회에 대한 연구들이며, 다른 하나는 문예운동과 사회적 기억 및 담론투쟁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노래운동이 사회와의 연관성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본 논문의 수행에 적절한 관점을 제공한다.⁵

우선 음악과 근대 사회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고전사회학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짐멜(Simmel)은 『음악에 대한 심리적·인류학적 연구(Psychological and Ethnological Studies of Music)』에서 음악과 근대 사회의 관계를 언급함으로써, 음악이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었다. 짐멜은 누구든 음악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악곡의 연주로부터 정확히 그 악보를 재현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짐멜은 이런 음악의 객관성을 음악만의 특성으로 언급한 바 있다. 악보언어가 음반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은 악보 언어가 그 집단의 생활 형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음악을 객관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언어와 세계, 음악과 세계 사이의 공통된 논리적 구

5 노래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형식의 말에 음을 붙여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든 음악을 의미한다.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화성 등의 형식을 결합하고 조화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기구)나 목소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로 정의된다. 따라서 노래란 자체의 형식에 언어를 결합하여 그것을 생산하는 개인 혹은 그들이 속한 집단의 감정이나 사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자체의 형식 또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조건에 의해 탄생되므로 노래는 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말소리에 감정을 애절하게 자극하는 변화무쌍한 곡조의 형식은 인간 내면을 파고들어 요동치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개인 및 집단이 자신을 표현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였다. 노래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통설상 원시적인 타악기에 맞추어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몇몇 견해들이 더 존재한다(김대행, 2013).

조 또는 번역규칙으로서 생활형식의 공통성이 전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한독음악학회, 1999). 이러한 논의는 음악과 근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1920년대 이르러 짐멜의 음악과 근대 사회의 관계 분석은 막스 베버에 의해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 막스 베버는 『음악의 합리적, 사회적 기초(Die rationalen und Soziologischen Grundlagen der Musik)』에서 기보법, 리듬론, 화성 등 유럽 음악의 발전과정 및 특성을 유럽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음악의 제 요소를 통해 유럽의 경제와 사회를 전반적으로 특징짓는 ‘합리성’에 대한 특별한 경우를 인식하였다. 그는 서양 음악의 음악체계 속에서 ‘합리화’를 발견해내려 하였다.⁶

이후 음악과 근대 사회 관계 분석은 실증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아도르노의 음악사회학 등 세 가지 경향으로 확산 발전되었다. 실증주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음악 양식이나 장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연구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적 관점을 비롯하여 모든 역사적 시점과 계급의 차원에서 음악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Johnson, 1984). 아도르노는 단순히 양적 연구방법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철학적 시각에서 음악과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도르노는 음악이 사회의 생산품이 아닌 사회적 행위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삶과 존재의 매체로서, 음악과 더불어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Tia DeNora, 2012; Theodor W. A., 1990).

이 연구들은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가 음악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이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며, 마지막으로 음악에 나타난 사회

6 막스 베버는 사회적 행위유형으로 목적 합리적, 가치 합리적, 정서적, 인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적 요소나 상징성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받아들여, 노래운동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을 비롯하여 노래운동에 작동하는 상징성 및 사회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노래운동이 사회에 미친 담론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문예운동과 담론에 대한 연구들은 21세기 반성적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⁷ 이 연구들은 기억 연구와 더불어 문예운동이 은폐된 과거를 재현하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연구는 지역, 매체, 계층 등을 망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졌다.⁸

특히 맥도넬(Macdonell, 1992)에 의하면 담론 매체들 간의 경합에 대한 이론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담론 층위 내에서도 매체 간의 경합과 긴장은 늘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는 다른 매체와 그 매체들에 대한 담론적 효과를 탈각 혹은 위계지우면서 하나의 담론으로 소급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맥도넬(Macdonell, 1992)은 담론들을 형성시키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 청중, 계층, 집단, 지역, 국가 등에 따라서 담론들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제도(institution)에는 개인에게 배당된 담론이 있고, 담론에는 위계질서(hierarchy)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의 제도 내에서 담론의 영역이 일률적인 것이 아닌 위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담론들은 궁극적으로 홀로 존재하기보다는 대립 혹은 위계적인 관계를 통하여

7 1920년대 문화연구로의 전환은 기계적 발전론에 토대하고 있었던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가 중요한 계기를 이루고 있는 바, 그 이후에는 의식이 맑스주의 철학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Johnson, 1984: 148; 나간채 2004: 13)

8 대표적으로 알라이다 아스만(2003)은 기억매체 연구를 통해 담론화 과정을 밝혔으며, 국내에서도 5·18민주화운동과 4·3사건을 중심으로 기억매체와 담론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존재한다. 이런 관점은 4·3문예운동 내에 존재하는 담론의 위계질서를 밝힘으로써 그간 획일적으로 분석되어진 4·3문예운동의 세부적인 경합과 특수성에 대한 다른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자료의 수집

한국 민주화운동과 노래운동사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4·3진상 규명운동과정에서 노래운동사가 그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자료 수집의 난항 때문이었다. 4·3사건 발생 당시에도 관련 노래들은 끊임없이 생산되었지만, 사건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문예활동이 끊임없이 억압을 받아 오면서 계승되지 못하였다. 1980년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이루어진 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도 이런 억압과 문예활동 내의 역학 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1백여 곡 이상의 노래가 창작되었지만, 원 초적 자료인 악보는 곳곳에 산재해 있거나 상당수가 유실되었다.

노래운동에 대한 언급은 김영범(2004), 박찬식(2004) 등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노래운동의 계보에 대한 체계적 정리는 다른 담론 매체들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3년 이은나가 4·3 노래운동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을 때에도 자료 수집은 난항이었다. 그 후 2008년 제주MBC라디오에서 1948년 노래투쟁을 주목한 바 있으나, 1980~90년대 진상규명운동에서의 노래운동사는 조명되지 못하였다.⁹ 2014년 제주문화방송이 4·3기념행사 기간 동안 4·3사건 당시 노래 일부를 오늘날의 음악 형식을 빌려 새롭게 재현한 바 있지만,¹⁰ 이 또한 진상규명운동 시기의 노래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

9 제주 MBC 라디오 특별기획 '1948년 봄의 노래'임.

지 않았다. 최근 4·3사건 70주년을 앞두고서야 새롭게 1980~90년대 노래운동을 재현하고자 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다.¹¹

4·3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노래운동이 차지하였던 역할에 비하여 그에 대한 평가는 문예운동 내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 받지 못하였다.

〈표 1〉 4·3진상규명운동 시기(1987~1999) 창작된 4·3사건 관련 노래

연번	노래 제목	작사	작곡	창작 혹은 첫 공연 추정년도	공연 및 보급주체	악보 수집 여부
1	4·3민중봉기가	-	-	-	-	가사
2	겨울나라	-	김제섭	1990	숨비소리	○
3	결사대 출정가	-	최상돈	1992 1993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	○
4	고향(다랑쉬마을)	최상돈	최상돈	1994 1995 1998	노래빛사월(자료집) 노래빛사월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5	골프장 건설 십계명			1991	섬하나산하나	
6	그 항전의 밤 ¹²	오영민	오영민	1990	숨비소리	○
7	그날이 올 때까지	임미경 시	오영민	1990	숨비소리	○
8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어	김하균 ¹³	김현중	1998	제주민예총아카이브	
9	금혼 ¹⁴	고훈	고훈	1994 1998	제주민예총아카이브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10	기억이 아파올 때	김하균	김하균	1998	제주민예총 아카이브	○

10 2017 제주MBC 4·3특별기획 음악다큐멘터리 ‘산, 들, 바다의 노래’임.

11 2017년 〈숨비소리〉 공연이 재연되었다.

12 오영민의 ‘그 항전의 밤’은 ‘항전의 밤’과 같은 곡으로 추정된다. 1990년 〈숨비소리〉 공연에는 작사 및 작곡자에 대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13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어’는 김하균 작사로 되어 있으나, 당시 집회 자료집 등에는 김현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었다.

14 제주민예총아카이브에 ‘금혼’은 1994년에 창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연의 흔적을 찾아보면, 1998년임을 알 수 있다.

연번	노래 제목	작사	작곡	창작 혹은 첫 공연 추정년도	공연 및 보급주체	악보 수집 여부
11	남도의 비	-	-	1993	-	○
12	동광마을 큰 넓게	박유미	박유미	1991	제주민예총아카이브	○
13	바람꽃처럼	양애선	김영미	1997 1998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14	바람은	김수열 시	우리노래 연구회	1989	우리노래연구회	
15	밤이 오면	이성복	김영미	1997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16	병문천에서	최상돈	최상돈	1994 1997	노래빛사월(자료집)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
17	봄 그 하나의 생각	양혜숙	한재준	1987 1990	- 숨비소리	○
18	불꽃 전사 ¹⁵	김유경	최상돈	1992 1993 1994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자료집)	○
19	불의 섬 ¹⁶	오름 (장정훈)	오름 (장정훈)	1989 1990 1993 1994 1995	오름 『불의섬』 (자료집)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자료집) 노래빛사월	○
20	불타는 섬 ¹⁷	빨치산가 이산하 시	김성훈	1989 1993 1994	우리노래연구회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자료집)	○

15 '불꽃전사'는 1993년 〈노래빛 사월〉 공연 악보에 굵게리 장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994년 〈노래빛 사월〉 자료집에는 12/8박자로 표시되어 있다.

16 '불의 섬'은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1990년에 창작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89년 재경제주학우문화패 〈오름〉 노래집 『불의 섬(1989)』에 실린 것으로 보아, 이미 1989년에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작되어진 후 1994년까지는 작사, 작곡에 '오름'이라는 노래패 이름을 붙였으나, 이후에는 장정훈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은나(2004: 172)도 장정훈으로 밝히고 있다.

17 '불타는 섬'은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작사 빨치산가, 작곡 김성훈, 창작년도 1990년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993년 〈노래빛 사월〉 공연 자료와 1994년 〈노래빛 사월〉 노래모음집 자료에는 '이산하 시'라고 적혀 있다. 한편 4·3사건 시기 불리던 제주도 빨치산가의 가사를 이산하가 재정리한 시에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불타는 섬이 빨치산가와 동일곡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노래연구회〉 1989

연번	노래 제목	작사	작곡	창작 혹은 첫 공연 추정년도	공연 및 보급주체	악보 수집 여부
21	불타는 오라리	최상돈	최상돈	-	제주민예총아카이브	
22	빨리 집에 갔으면	최상돈	최상돈	1997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
23	사월 하늘	오남호	오남호	-	제주민예총아카이브	
24	사월에	양애선	최상돈	-	제주민예총아카이브	○
25	사월에서 통일로			1993	노래빛사월	○
26	새벽을 기다리며	최상돈	최상돈	1992	노래빛사월	○
27	서우젓소리	-	-	1995	노래빛사월	
28	섯알오름의 한	최상돈	최상돈	-	제주민예총아카이브	○
29	성천포	-	-	1995	섬하나산하나/숨비소리	
30	세월 ¹⁸	이산하 최상돈	최상돈	1993 1994 1995 1997 1998	제주민예총아카이브 노래빛사월(자료집) 노래빛사월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31	소년	강석훈	강석훈	1998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32	소리개 ¹⁹	강석훈	고현민	1998	제주민예총아카이브	○
33	소리개	고정국 시	고현민	1997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34	소리개	정호승 시	고현민	1995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35	아니 안 되겠지요	박철	안현준	1997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년 공연에서 이미 시연된 것으로 보여, 창작년도는 1989년도로 추정된다.

18 '세월'은 2006년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이산하 시, 최상돈 작곡으로 되어 있으며, 1993년 창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994년 〈노래빛 사월〉 자료에는 최상돈 작사·작곡으로 되어 있다.

19 '소리개' 노래는 작사자에 대하여 가장 혼동되어 있는 곡 중의 하나이다. 1995년 〈섬하나 산하나〉와 〈숨비소리〉 공연에서 '소리개'는 정호승 시, 고현민 작곡으로 되어 있다. 1997년 제주민예총 음악회 공연에서는 고정국 시, 고현민 작곡으로 되어 있다.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는 '소리개'에 대해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강석훈 작사, 고현민 작곡과 고정국 시, 고현민 작곡으로 기재 되어 있다. 작곡자의 경우 편곡자 등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노래의 경우 작사자가 매우 다르게 되어 있다. 어찌되었든, 세 곡 모두 하나의 곡으로 추정된다.

연번	노래 제목	작사	작곡	창작 혹은 첫 공연 추정년도	공연 및 보급주체	악보 수집 여부
36	아리랑고개	정호승	한재준	-	-	○
37	아버지의 무덤	-	-	1993 1994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자료집)	○
38	아빠와 자전거	이은정	김현중	-	제주민예총아카이브	
39	애기동백꽃의 노래	최상돈	최상돈	1999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40	일어서는 사람들	-	-	1991	섬하나산하나	○
41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²⁰	청년 문학회 (김경훈)	우리노래 연구회 (강동조)	1990 1991 1993 1994	제주민예총아카이브 섬하나산하나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자료집)	○
42	입산 ²¹	김수열시	우리노래 연구회 (김성훈) 박유미 곡, 최상돈 편곡	1989 1995 1997 1998	우리노래연구회 노래빛사월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43	있었지 ²²	오영민	오영민	1990 1997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
44	작품1	-	-	1990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45	작품2	-	-	1990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20 '잃어버린 땅'도 1991년 <섬하나 산하나> 공연 악보에는 작사 및 작곡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994년 <노래빛 사월> 자료집에도 작사 및 작곡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006년 제주학아카이브 등, 차후에야 그 작사자와 작곡자명이 기재되었다.

21 이은나 및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서는 '입산'이 1990년도에 창작된 것으로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1989년부터 공연에서 선보인 것으로 보아, 1989년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는 김수열 시, 김성훈 작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7년 제주민예총 음악위원회 공연에서는 박유미 곡, 최상돈 편곡으로 되어 있으며, 1998년 <섬하나 산하나>와 <노래빛 사월> 공연에서도 박유미 곡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는 '소리개'와 달리 작곡자가 혼동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2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는 '있었지'가 1991년에 창작된 것으로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1990년 <숨비소리> 공연에서 공연된 것으로 보아, 1990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영민이란 이름은 나중에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연번	노래 제목	작사	작곡	창작 혹은 첫 공연 추정년도	공연 및 보급주체	악보 수집 여부
46	잠들지않는 남도 ²³	안치환	안치환	1987 1989 1990 1993 1995 1997	- 우리노래연구회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대학가 노래빛사월 제주민예총음악위	○
47	제주도 빨치산 ²⁴	이산하	우리노래 연구회	1989 1992	우리노래연구회 노래빛사월	
48	제주도민의 노래	최상돈	최상돈	1992 1993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	○
49	제주도의 노래	-	-	1990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50	증언(백조일손)	김수열	최상돈	-	제주민예총아카이브	○
51	집으로 간다네	최상돈	최상돈	-	제주민예총아카이브	○
52	태양은 떠도 세상은 ²⁵	김경훈	오영민	1991 1993 1994	추모제기간(자료집)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자료집)	○
53	평화의 섬	최상돈	최상돈	1994 1997 1998	제주민예총아카이브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54	하나되는 노래 ²⁶	김수열	최상돈	1991 1992	섬하나산하나 노래빛사월	○
55	하나되는 땅	-	-	-	-	
56	한내에서	최상돈	최상돈	-	제주민예총아카이브	○

23 '잠들지 않는 남도'는 4·3사건을 대표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으나, 제주출신이 아닌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 곡이다. 1990년 4월제 한라산 등반 자료집에는 '잠들지 않는 남도'가 강영준(혹은 장영준) 작사, 작곡으로 기재되어 있다. 1987년부터 제주지역에서 불리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1989년 〈우리노래연구회〉에서 공연에서 선보였다. 이때부터 안치환이란 이름이 거론되었다.

24 '불타는 섬'과 동일곡으로 보이나, 확인이 필요하다.

25 '태양은 떠도 세상은'은 1993년 〈노래빛 사월〉 공연에는 작사가 및 작곡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994년 〈노래빛 사월〉 노래모음집에야 이름이 기재되었다.

26 '하나 되는 노래'는 1991년 〈섬하나 산하나〉에 작사가 및 작곡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작사가 및 작곡가가 기재되어 있었다.

연번	노래 제목	작사	작곡	창작 혹은 첫 공연 추정년도	공연 및 보급주체	악보 수집 여부
57	한라산	이산하?	우리노래 연구회	1989 1990 1993 1995	우리노래연구회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노래빛사월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58	한라산1	-	-	1990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59	한라산2	-	-	1990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60	한라산에 첫 눈 내리니 (고양옹찬열사 추모...) ²⁷	-	-	1991	섬하나산하나	○
61	한라산이여	고창훈	최상돈	1994 1995 1997 1998	노래빛사월(자료집) 노래빛사월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62	한라여	-	-	1989	우리노래연구회	○
63	한라출정	-	-	1992	노래빛사월	
64	항전의 밤	-	-	-	-	○
65	해방가	-	-	1990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66	햇모의 노래 ²⁸	최상돈	최상돈	1992 1993 1994 1997 1998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자료집) 제주민예총음악위원회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67	협죽도	박용배	최상돈	1992 1993 1994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 노래빛사월(자료집)	○
68	화석 ²⁹	양애선	김영미 최상돈	1997 1998	제주민예총음악위 섬하나산하나/노래빛사월	○

27 1991년 〈섬하나 산하나〉 공연에 작사가 및 작곡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8 ‘햇모의 노래’는 1992년 〈노래빛 사월〉 공연 자료집에는 작사가 한전후로 기록되어 있다. 1994년 〈노래빛 사월〉 노래모음집에는 ‘사월 글’로 적혀 있다.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는 ‘최상돈 작사, 작곡으로 기재되었다.

29 ‘화석’은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와 1997년 공연에는 김영미 작곡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러는 사이 자료 유실은 심해졌고, 산재된 자료를 수집하는 기초적인 일이 먼저 요구되어졌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4·3노래운동의 자료 수집은 4·3노래운동의 궤적을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었다.

4·3노래운동의 궤적을 정리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4·3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시행되었던 시위, 집회, 공연 등의 행사 자료 등에 나온 악보 및 노래책자들과 노래운동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 외에 그때 불리었던 노래들을 채집하거나 방송 및 문헌, 인터넷 자료(제주민예총 아카이브)들을 수집하였다. <표 1>은 4·3진상규명운동 시기(1987~1999)에 창작된 4·3사건 관련 노래들을 수집한 목록이다.

4.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4·3진상규명운동 과정에서 일어났던 노래운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래운동이란 노래와 운동이 합쳐진 용어로, 노래를 통한 사회운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기존의 사회구조와 제도를 변화·개선시키기 위하여 대중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적이고, 집합적이며, 연속적인 다양한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운동에 노래가 협력함으로써 노래운동 영역이 구축된다.

각 나라마다 노래운동이라고 불리던 특정 시기가 존재하지만, 한국에서 노래운동의 시기적 기원은 197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³⁰ 1970년대 후반 김민기가 야학활동을 하면서 노동자를 위한 노래극을

1998년도 공연에는 최상돈 작곡이라 되어 있다. 이는 편곡자인지, 작곡자 혼동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30 1970년대 중반까지는 독자적인 민중가요라는 인식은 없었다. 당시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세력은 몇몇 구전가요, 대중가요와 외국 인권운동 노래(번안곡), 저항적 의미가 있는 복음성가류를 차용해서 사용하였다(나무 위키, 2017). 그러다 점차 민중가요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생성하였다.

제작하고 이 과정에서 몇몇 대학 노래패들이 지도를 받았다. 이 노래패들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민중가요를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대학 노래패 출신들이 결집하여 1984년 노래모임 〈새벽〉을 결성하면서 본격적인 노래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학생운동의 성장은 대학 노래패들의 발생과 확산을 가져왔고, 1986년 6·10항쟁 이후 민중가요는 새로운 문화경험 세대와 함께 많은 곡들이 탄생하였다. 주제의 대부분은 '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의 발흥을 기점으로 김호철 등을 위시한 군가풍의 민중가요가 노동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단결투쟁가' 등이 있다. 1988년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일명 노찾사)〉이 합법적인 음반 발매를 비롯하여 집회의 부속물이 아닌 독자적인 합법적인 공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³¹

1990년대 후반 민중가요라는 말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민중가요는 'protest song'을 번역해서 '저항가요'라고도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중가요'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주로 사회운동에서 불리는 노래를 총칭하는 말이다. 그 주제는 다양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민주화부터 노동, 인권, 평화, 통일 등 대체로 진보 계열 운동에서 다루는 주제를 노래하였다. 노래의 생산은 진보계열 운동 단체 혹은 개인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노래집의 배포, 노래테이프의 배포, 집회 장소에서의 이용을 통해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래운동의 개념이나 수행방식은 1980년대 들어 제주지역에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문제를 다루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주지역의 노래운동은 한국의 민주화 같은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지역개발문제, 4·3사건 문제 등 지역 현안문제를 노래로 다

31 리그베다위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영미(1991)를 참조함.

루었다. 이 시기 4·3사건 관련 노래운동은 4·3항쟁과 투쟁을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본격적인 진상규명운동의 시점에 이르러 노래운동은 4·3사건의 비극적 학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4·3노래운동이라는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4·3진상규명운동과 노래운동도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면담조사, 현지관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해 수행 주체, 수행 시·공간, 수행 형식, 수행 담론 등에 따라서 4·3진상규명운동시기 노래운동의 시기별 구분을 시도하였으며, 시기에 따라 수행 주체, 수행 시·공간, 수행 형식, 수행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나아가 각 단계별 4·3노래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노래운동과 경합을 벌였던 여러 담론 매체들과의 역학관계를 통해 노래운동이 그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유실이 컸던 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4·3진상규명운동과 노래운동의 역사적 전개

1. 역사적 전개 구분

노래운동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 및 노래운동이 사회를 바꾸는 담론투쟁의 입장에서 보면 4·3노래운동의 역사는 긴 시간적 궤적을 가지고 있다. 4·3노래운동은 4·3사건의 원초적 사건과 이후 정치사회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 속에서 4·3사건을 재현하는 노래운동의 수행 주체, 수행 형식, 수행 담론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 1) 4·3사건의 원초적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 무장대 및 선무대의 항

쟁과 폭동의 담론이 격돌하던 시기의 노래투쟁 2)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4·3사건의 재현과 관련하여 〈제주문화운동협의회(일명 제문협)〉라는 문화예술활동 연대조직이 생겨나고, 그 연대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숨비소리〉, 〈우리노래연구회〉 등의 노래운동 단체들이 금기의 틀을 깨고 4·3사건을 자주 항쟁으로 평가하며 초기 창작활동을 벌여나갔던 시기로, 곧 문민정부의 성립과 제주도의회의 4·3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변화된 환경을 맞이하여 새로운 노래 운동으로 나가던 시기(1987~1993년)³² 3) 1993년 문민정부의 성립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과 1994년 새로운 문화예술활동 연대조직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일명 제주민예총)〉가 생겨나고, 역량을 강화한 소속 문예단체들이 진상규명(양민학살)의 문화적 담론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던 시기(1994~1999년)로 〈섬하나 산하나〉 및 〈노래빛 사월〉 등이 활동한 시기 4)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 특별법)이 만 들어지고, 이후 4·3사건에 대한 행정부 수반의 사과와 더불어 4·3노래 운동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면서 평화의 담론 등을 노래한 시기로 〈노래세상 원〉 등이 활동하는 시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 마지막 시기로 2014년 국가 추모일로 지정되면서 4·3사건과 관련된 일들이 국가 및 지방정부 기구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4·3노래 영역 및 전야제 부분이 〈국가보훈처〉 및 〈제주4·3평화재단〉 등으로 넘어가고, 〈제주민예총〉의 세가 점차 예술적 영역으로 제한되어 가는 시기 등

32 1960년 4·19혁명 시기에도 4·3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운동과 국회 조사단 파견이 있었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많았고, 뒤이어 일어난 5·16군사정변과 박정희 집권으로 진상규명의 분위기는 시들어버려 문예운동은 아예 태동되지도 못하였다. 4·3사건과 관련된 문예운동의 초석이 된 것은 1979년 소설가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창작과 비평에 실리면서부터이다. 이 소설은 지식인, 문예인들에게 진실규명의 당위성 및 추도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는데, 1980년대 후반의 한국민주화운동은 제주 4·3사건 발발 40년이 되는 해와 맞물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4·3진상규명운동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표 2>의 2기와 3기에 해당하는 4·3노래운동 태동기와 확산기가 본 연구의 대상에 부합한다.

<표 2> 4·3진상규명운동과 노래운동의 역사적 전개

구분	시기	정치사회변화	추모제/ 예술제	노래운동의 대응	연대단체	주요활동단체
1기	1945 ~1954	4·3사건발발	-	4·3사건 당시	-	선무공작대, 무장대 등
2기	1986 ~1993	한국 민주화운동 4·3 40주기	추모제/ 위령제 양분	4·3노래운동 태동기	제주문화 운동협의회	숨비소리, 우리노래연구회 (→섬하나 산하나) 오름, 노래빛 사월 등
3기	1994 ~1999	4·3특위설치 4·3 50주기 다량쉬굴 유해발견	합동위령제/ 예술제 양분	4·3노래운동 확산기	한국민예총 제주지회	숨비소리(→95소멸), 섬하나 산하나, 노래빛 사월 등
4기	2000 ~2013	4·3특별법 제정 4·3 60주기	공식위령제/ 예술제	4·3노래운동 전환기	한국민예총 제주지회	섬하나 산하나, 노래빛 사월→원 등
5기	2014 ~현재	4·3국가기념일 지정	공식위령제/ 예술제	4·3노래운동 재모색기	한국민예총 제주지회	노래세상 원 등

2. 4·3진상규명운동과 노래운동 태동기: 1986~1993년

유신체제와 두 차례의 군사정권, 5·18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면서 1970년대 민족문화론의 등장과 민중문화운동의 흐름은 1987년 6월의 시민항쟁 전후로 새로운 문예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청년 중심의 문예운동으로 대두하여 기존 문화계와 대립, 갈등, 접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발양되었고,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의 새로운 구심체로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하였다(허정, 2002). 이 시기 제주지역에서도 새로운 문예운동의 흐름을 주도하는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등과 관련된 단체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제주청년문학회〉, 〈우리 노래연구회〉, 〈놀이패 한라산〉, 〈그림패 브룸코지〉 등이다. 지역 청년 문화운동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인식을 기반으로 지역이 당면한 현실 문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 등이 이면에 흐르고 있었는데, 이 시기 제주지역 청년문화운동 내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 문제와 국가 및 외부 자본에 대한 제 고찰이 일어나던 시점으로, 이러한 인식은 나아가 4·3사건에 대한 재인식과 연결되었다. 특히 1988년은 4·3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되는 해로, 추모를 위한 다양한 문예방식이 논의되고 4·3사건 관련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던 시점이기도 하였다.³³

노래운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제주에서 노래운동은 제주대학교 학생들 및 졸업생들이 주축이었는데, 1986년 3월 한재준을 중심으로 구성된 〈숨비소리〉가 제주지역 노래운동의 선발주자 격이었다.³⁴ 이후 1987년 8월에 〈우리노래연구회(당시 대표: 김민수)〉가 창단되면서 이 두 개 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노래운동 및 4·3노래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노래연구회〉는 〈제주청년문학회〉와 〈놀이패 한라산〉과 더불어 〈제주문화운동협의회〉라는 협의체적 연대조직을 결성하여 활동범위를 넓혀나갔다.³⁵ 김영범(2004: 57)에 따르면, 〈제주

33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4·3연구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등이 참여하였다. 이전까지 4·3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추모행위는 총혼위령제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민중항쟁의 담론을 표방한 단체들에 의해 추모제가 시행되면서, 1988년에 〈제주도 4·3사건 민간인반공희생자 유족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이 시기는 담론 간의 격돌이 크게 부상하던 시점이기도 하다.

34 당시 자료들의 오류에 의해 1982년에 창립된 것으로 인쇄된 자료들도 있으나, 1986년으로 확인된다.

35 이은나(2004: 169)는 〈제주도문화운동협의회〉가 1989년에 구성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주도문화운동협의회〉는 1987년 6월 항쟁이후 7-8월에 구성되었다. 〈제주문화운동협의회〉는 1987년 12월에 노래극 “다시는 지지 않으리” 공연을 수행하였다. 〈놀이패 한라산〉은 1980년에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후 일련의 마당극, 마당굿 공연활동을 벌이다 정부의 탄압으로

문화운동협의회)는 민족민주운동의 일환으로 문예운동이 안고 있던 여러 과제들을 소화해내려 하였다.

이 시기에 4·3사건과 관련된 노래운동은 1987년 안치환에 의해 창작된 ‘잠들지 않는 남도’가 대표적으로 불리어졌으나,³⁶ 곧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창작활동들이 시작되어, ‘봄, 그 하나의 생각’을 필두로 매년 추모제 기간에 열리는 노래공연에서 창작곡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특히 1988년 추모제가 국가에 의해 저지되면서 1989년 시행된 제주사회에서의 첫 추모제는 4·3사건 관련 문예운동 및 노래운동을 본격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³⁷ 이 시기 <우리노래연구회>는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4·3사건을 재현한 창작 노래들을 공연형태로 선보였다.³⁸ 1990년에는

1983년 해체된 <극단 수놓음>과 그 후신인 <한올래>, <눌>의 단원들이 재결합하여 조직된 놀이패였다. <제주문화운동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림패 박툼코지>는 <사진패 시각 인식>과 함께 1989년에 <시각매체운동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문화운동 노선을 추구하였다(김영범, 2004: 57).

36 최초의 4·3항쟁 추모곡으로 만들어져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제주지역에서 발행된 음악관련 팸플렛 등에서도 잠들지 않는 남도의 작곡 및 작사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은나(2004: 167)에 의하면 이 노래는 4·3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발표 당시에는 작곡자가 장영준이라는 가명이었다고 한다.

37 1989년 제주지역의 민주화집단들이 함께 모여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1회 제주항쟁추모제’를 개최하였다. 이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청년연합>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제주지역 총학생 협의회> 학생들도 ‘4·3자주항쟁 계승 및 구국 선열 위령추모행사’라는 주제 아래 집회를 가졌다(제주신문, 1989년 4월 4일; 한겨레신문, 1989년 4월 4일; 조선일보, 1989년 4월 4일) 41주기가 되던 1989년 첫 추모제를 치르게 되었는데, 추모제 준비위원회로 <제주여민회>,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그림패 박툼코지>, <제주YWCA대학부/청년부>, <제주교사협의회>, <제주지역 동아리연합회>, <제주4·3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 <제주지역총학생협의회>, <제주지역 동아리연합회협의회> 등이 참여하였고 후원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가 하였다. 이 추모제에서는 초감제, 마당굿(한라산), 슬라이드 상영(제주4·3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 추모강연(현기영), 4·3추모 및 범도민 진상규명 촉구대회, 증언 및 토론회, 4·3민족문화제, 4월미술제(그림패 박툼코지)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38 <우리노래연구회>는 4월 1일과 2일에 걸쳐 첫 [그해 4월, 그리고...]이라는 4·3노래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 주관은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우리노래연구회>였으며, <여민

〈숨비소리〉와 〈우리노래연구회〉가 함께 [잠들지 않는 남도] 노래 발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4·3노래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날이 올 때까지’, ‘있었지’ 같은 노래들이 창작되어 발표되었다.³⁹

1991년에 이르면 〈숨비소리〉와 〈우리노래연구회〉는 조직 및 개인적 역량강화 노력들이 이어졌는데, 1991년 3월 〈숨비소리〉는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 건설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자 노래 분과로 참여하였다.⁴⁰ 그리고 1991년 같은 해 6월 〈제주문화운동협의회〉 건설 준비위원회 소속인 〈풍물〉, 춤 분과인 〈새날〉팀과의 연합공연인 ‘함성’을 선보였다. 같은 시기 〈우리노래연구회〉도 역량강화 차원에서 가요분과와 민요분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개편하여 노래패 〈섬하나 산하

회 문화부〉, 〈소리열〉이 찬조하였다. 1989년 4월 1일 오후 5시30분과 2일 오후 7시에 공연이 수행되었다. 이 공연에서 [서곡 및 서시로 ‘잠들지 않는 남도’가 불리었으며, 1948년을 재현하는 [그해 4월] 주제 아래, ‘한라산’, ‘바람은’, ‘제주도 빨치산’, ‘불타는 섬’, ‘입산’, ‘한라여’ 등이 불리었다. [그해 4월, 그리고 주제 아래서는 4·3사건 이후 일어났던 한국사의 일련의 사건들을 ‘오월의 노래’,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로’, ‘만주 출정가’ 등을 통해 드러냈다. 그리고 중국에는 ‘광야에서’, ‘연대의 노래’ 등으로 이어지는 장구한 서사적 기획을 통해 4·3관련 노래들이 배치되었다(우리노래연구회, 1989). 이 시기 재경제주학우문화패 〈오름〉의 노래집 『불의 섬, 1989』에 수록된 ‘불의 섬’이 있다. 처음 이 곡이 발표되었을 때 창작자는 단체 이름을 딴 ‘오름’으로 기록되었는데, 1990년대 이후 지인들에 의해 정식으로 창작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이은나, 2004: 168).

39 1990년 4월제 기간 동안 노래패 〈숨비소리〉와 〈우리노래연구회〉가 공동 주관한(주최: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4월 노래 발표회 ‘잠들지 않는 남도’ 공연이 4월 5일 당시 사강문화센터에서 두 차례 열렸다. 제1부 [통곡하는 한라라는 주제 하에 ‘해방가’, ‘한라산 1’, ‘한라산 2’, ‘작품 1’, ‘작품 2’, ‘지리산’, 제2부 [어둠을 뚫고라는 주제 하에 ‘잠들지 않는 남도’, ‘불의 섬’, ‘애국의 길’, ‘우리들의 땅’, 제3부 [함께 부르는 노래] 주제 하에 ‘광야에서’, ‘가야하네’, ‘제주도의 노래’ 등이 공연되었다.

40 1991년 3월에는 노래패 〈숨비소리〉, 풍물패 〈새날〉, 영화 사진작가 모임인 〈움직거리〉, 문학인 모임인 〈들메〉가 함께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을 결성하였다. 〈제주문화운동협의회〉와는 별도의 연대체 조직으로 분리한 〈제주문화예술운동연합〉은 1994년 2월에 민족예술의 발흥에 뜻을 같이하는 도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결속체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가 조직될 때 그곳으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제주문화운동협의회〉의 각 소속단체는 개별적으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산하의 분과 위원회로 결합되었다가 1996년 전체 조직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로 해소되었다.

나)와 민요패〈소리왓〉으로 재조직하였다.⁴¹ 이런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9월에는 〈숨비소리〉 등 제주도 14개 문예단체가 참여한 집체극 ‘새날을 향하여’가 선보였다.⁴²

회원들의 역량도 커지면서 초기 일부 개인 작곡자에게 의존하던 창작이 다양하게 일어났는데, 박유미의 ‘동광마을 큰 넓께’를 비롯하여, 문학운동을 하던 김경훈의 시와 재경학우회 강동조의 작곡으로 만들

41 〈우리노래연구회〉는 노래패 중심의 활동을 하였지만, 1990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선배들의 의도와 졸업 후 활동 진로를 고민하던 제주대 국문학과 민요분과 〈섬비나리〉출신 세 명(안민희, 문애선, 안희정)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가요분과와 민요분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충남대 민요패의 제주 전수가 주효하였다. 1990년 말 1991년 초 사이에 안동민요연구회 소모임 활동을 하던 권오동과 사학과 노래패 〈노래마음〉출신 현희순이 차례로 민요분과에 합류하면서 활동이 구체화되었다. 1991년 상반기 〈우리노래 연구회〉는 ‘4·3제주민중항쟁 43주기 사월제’에서 보급하기 위해 ‘불타는 섬이란 노래테이프를 제작하였다. 자체 제작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제작여건상 음질이 떨어져서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다. 각 분과의 회원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7월 분가 논의 후 하반기 동안 각기 독자적 형식의 패로 독립하기로 하였다. 1991년 12월 21, 22일 노래패가 먼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 중강당에서 창립공연을 하는 것으로 〈섬하나 산 하나〉의 시대를 열었다. 민요분과는 그 해를 넘겨 1992년 1월 6일부터 10일간 제1회 민요교실을 여는 것으로 민요연구회(준비위원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2년 7월에 민요패 〈소리왓〉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안민희, 안희정, 현희순, 문용철, 이상오, 변향자, 고경녀, 조기두 등이 참여하였다(<http://m.blog.daum.net/sori196>, 2014년 11월 19일).

42 〈우리노래연구회〉에서 노래패로 재조직된 〈섬하나 산하나〉가 1991년 12월 21일과 22일 [섬하나 산하나, 그리고 노래하나(주최: 제주문화운동협의회)]라는 첫 번째 정기공연을 제주대학교 법정대 중강당에서 가졌다. 공연은 앞풀이, 본풀이, 뒷풀이로 구성되었다. 이때 공연된 노래들은 제주지역현안 문제와 4·3사건을 드러내는 노래들로 채워졌는데,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질 땅에 따뜻한 햇빛 한줄 될 수 있다면’, ‘일어서는 사람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하지 않았네’, ‘월급날’, ‘아름다운 세상’, ‘골프장 건설 십계명’, ‘한라산에 첫 눈 내리니’, ‘만화경’, ‘제발제발’, ‘청년진군가’, ‘하나되는 노래’, ‘하나되는 땅’,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 ‘사랑으로’,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나누기’ 등이 공연되었다. 이 노래들은 당시 제주지역의 현안 문제 및 4·3사건에 대한 노래들이었다. 노래에 박유미, 김현숙, 문광원, 안미정, 양덕선, 고수미, 양윤호, 드림에 한승규, 키보드에 함우규, 임인경, 베이스에 김성일, 기타에 강민철, 조명에 정공철, 찬조에 안민희, 현희순, 주석중, 문석범, 한용호, 현애란, 우정출연에 최상돈 등이 참여하였다(섬하나 산하나, 1991). 그러나 〈숨비소리〉는 1995년에 해산하기에 이르는데, 이은나(2004: 168)는 민중가요가 갖는 예술적 미학과 운동성의 충돌성이 커지면서라고 보았다.

어진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그리고 〈놀이패 한라산〉의 극음악으로 쓰인 김경훈 시에 오영민이 작곡한 ‘태양은 떠도 세상은’ 등은 이 시기 대표적 창작곡들이다.

초기 〈숨비소리〉와 〈우리노래연구회〉의 4·3노래운동은 노래가 사회변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출발하여, 개발바람에 시달리는 제주지역의 모습과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대한 저항의지,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 등에 대한 노래와 현재를 있게 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하고 재평가하는 노래운동으로 이루어졌다. 좌승훈(2003년 10월 30일)은 〈숨비소리〉의 노래운동 등을 평가하면서, 노래운동의 종래 틀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보다 면밀히 접근함으로써 노래가 사회적 발언이나 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후 1992년 1월에는 〈노래빛 사월〉이 최상돈 주체로 창립되었는데,⁴³ 1992년은 4·3사건의 진상규명에서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다랑쉬굴 유해가 발견된 해로, 〈노래빛 사월〉의 4·3노래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⁴⁴ 〈노래빛 사월〉의 초창기 창작 노래들은 4·3사건 관련

43 1992년 1월 15일 노래팀 준비 첫 모임에는 5명이 참여하였다(노래빛 사월, 1994)

44 1992년 제주시 구좌읍(당시 북제주군 구좌읍) 중산간 지역에 있는 다랑쉬굴에서 4·3사건 때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11구가 〈제주4·3연구소〉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일은 그간 철저하게 은폐되었던 4·3사건의 참상이 허구가 아님이 증명되었고, 4·3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다랑쉬굴 4·3희생자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제주도민 4·3진상규명을 위한 도민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1993년 한 해 내내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되고, 지역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제주도의회에서는 4·3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식적으로 4·3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실태 조사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런 분위기는 4·3사건에 대한 관심을 대중들에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적 욕구를 공적인 장으로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1993년 4월의 사월제 문화행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초반 10여개의 단체로 구성되었던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는 1993년에 이르면 20여개의 단체로 확산되었다(현혜경, 2008: 69-70). 또한 이 시기 담론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져 치러지고 있었던 위령제 및 추모제를 합동으로 치르자는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시에 곡을 붙였지만 점차 다른 공연물들과 연계된 작품이 많아지면서 최상돈 자신의 시에 곡을 만들었다. 이 시기 최상돈이 창작한 대표곡 '세월'⁴⁵이 있다.⁴⁶

1992년 다량쉬굴 유해 발굴로 인한 진상규명운동의 고조된 분위기로 인해, 1993년 추모제 행사 자료에 '잠들지 않는 남도'의 악보 위에 원래 작곡 작사자인 안치환의 이름이 기재되었고, 서서히 4·3노래운동은 해금의 분위기를 맞이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⁴⁷ 이 시기

45 이것은 이산하 시에 최상돈이 글을 덧붙여 작곡한 최상돈의 초기 작품이다.

46 <노래빛 사월>은 1992년 4월 3일에 <섬하나 산하나>와 함께 '사월제 문예 선전'을 가진 뒤, 5월 23일에서 24일 양일간 첫 번째 노래한마당 [4월은...5월은...] 공연을 가졌다. 그들은 첫 공연에서 '4·3의 올바른 정서를 찾아다니며, 당시에 불리어지던 노래들을 찾아내시다'란 취지를 밝혔다(노래빛 사월, 1992), 이들은 공연에서 '4·3사건을 현상적으로나마 짚어보고 최근에 발견된 다량쉬굴 희생자의 추모를 여러 형태로 형상화'시키려 하였다. 공연은 8·15, 4·3, 4·19, 5·18, 1990년 상황을 드러내는 서사적 전개 과정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8·15시기를 드러내는 노래로, '민족해방가 2',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전사의 맹세', '제주도 빨치산가' 등이 불리었다. 4·3사건 시기를 드러내는 노래로 '햇빛의 노래', '협죽도' 등이 불리었으며, 4·3사건 이후 상황을 드러내는 데서는 '결사대 출정가', '한라 출정', '제주도민의 노래' 등이 불리었다. 5·18민주화운동을 재현하는 상황에서는 '오월의 노래', '오월', '진혼곡' 등이 공연되었다. 1990년대 당시에는 명지대생 강경대를 비롯해 당시 학생 분신 사건들이 일어지면서 '경대야, 귀정아, 승희야, 영균아, 세용아, 아아...'와 '일어나라 열사여', '투쟁의 한길로', '불꽃 전사', '새벽을 기다리며' 등이 불리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노래', '아 민주정부' 등이 불리었다. 이런 서사적 노래공연의 전개는 4·3사건을 한국사의 일부에 배치시킴으로써, 지역문제 만이 아닌 한국사 전체의 상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기획을 보여주었다. 또한 처음으로 불리어진 노래의 악보에 본래의 작사 작곡자가 누구인지 부분적으로 밝히는 시점이 되기도 하였다. 노래: 오철성, 고가영, 정영희, 김현애, 기타: 최상돈, 건반: 고수미, 피아노: 김충희 등이 참여하였다. 노래빛 사월, 1992, 『노래빛 사월 첫 번째 노래한마당 "4월은...5월은..."』 참조하였다.

47 1993년 4월 1일 가톨릭 회관에서 열린 <노래빛 사월>의 [사월 서곡 1948년 4월 3일의 노래모음집에도 이전 보다 훨씬 많은 작곡 작사자들의 이름들이 공개되었다. 이전과 다른 공적인 분위기의 형성 영향이었다. 이 노래공연에서는 '결사대 출정가', '불꽃 전사', '불의 섬', '불타는 섬', '아버지의 무덤',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제주도민의 노래', '태양은 떠도 세상은', '한라산', '사월에서 통일로', '협죽도', '햇빛의 노래' 등이 불리었다. <노래빛 사월>은 4월 2일에는 4·3주기 사월제 문화행사 [사월서곡 1948. 4·3]영상노래 공연도 가졌다. 11월에는 국회차원의 4·3진상규명운동과 고(故) 양용찬 열사 2주기 추모거리 공연에 참여하였다. <노래빛 사월>은 1993년 4월 29일에 전국 연극계 제주예선참가작 극단무의 [만인보] 음악 창작 및 노래, 반주를 맡

노래운동은 삶과 지역 현장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새롭게 입히게 된 시점으로 민중문화라는 용어가 제주에서도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노래운동은 독재정권에 의해 억압당하고 소외되고 희생이 컸던 계층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대중들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역사적 희생자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되는 초기 단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3. 4·3진상규명운동과 노래운동 확산기(1994~1999년)

1992년 다랑쉬굴의 발견은 4·3사건의 비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실체가 되었다. 이는 범국민적 4·3진상규명운동의 촉발제가 되었으며, 이 시기 4·3노래운동은 봇물 터지 듯 이루어졌다. 〈노래빛 사월〉 및 최상돈의 역량이 커진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의 시작과 그로 인한 지역문제의 향상, 정권교체의 지속적 연장 선상에 따라 1993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국회 4·3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서 제출과 희생자에 대한 신고 및 접수 등이 이루어지면서,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반공유족회와 사월제로 양분되었던 각 위령제는 1994년을 기점으로 합동위령제로 통합되었고, 제도권 내에서 초기 추모 및 위령사업이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문예운동의 역할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합동위령제의 성립은 민주 진영에서 치르던 추모제의에서 추모의식만 위령제로 이전하고, 추모제의 나머지 행사들은 예술제의 형태로

기도 하였으며, 5월 6일에는 광주 오월제 거리 곳에 〈섬하나 산하나〉, 민요패 〈소리앗〉과 함께 참가하기도 하였다. 10월 9일에는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제주연합 창립 1주년 기념식 축하공연을 하였으며, 12월 25일에는 젊은 이벤트 ‘판’창립기획전 [정태춘, 박은옥과 함께여는 노래공연을 갖기도 하였다(노래빛 사월, 1994).

변화하였다. 추모제는 제주문화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994년 이후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회(일명 제주민예총)〉가 발족하고, 4·3문예운동을 펼쳤던 단체들이 〈제주민예총〉으로 흡수되면서 자연 4·3사건 관련 문예운동 및 노래운동도 〈제주민예총〉 주도 아래 좀 더 체계적인 조직과 활동을 구축하는 과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주민예총〉의 사업과 활동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굿, 문예비평 등 7개 분과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뒤에 가서 풍물, 민요, 영상분과의 위원회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이때 노래모임 〈숨비소리〉, 〈노래빛 사월〉, 〈섬하나 산하나〉 등이 노래운동과 관련 하여 주축을 이루었다.⁴⁸

〈제주민예총〉은 합동위령제의 논의 과정에서 4·3전야제를 포함하여 4·3예술제를 합동위령제의 일부로 배치하려 하였으나 〈4·3유족회〉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와 〈4·3유족회〉가 공동 주최하는 합동위령제에서 병행되지 못하고 독자적인 4·3예술제로 시행되었다. 이후 제주민예총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4·3문화예술제(통칭 4월제 혹은 사월제)를 중심사업으로 시행하여 왔다. 위령제와 예술제의 분리는 4·3문예운동 및 노래운동의 독자적인 행보로 이어졌다.

1994년 예술제의 음악위원회로 속해 있던 〈섬하나 산하나〉는 4·3 노래공연 ‘진혼’을 4월 1일~2일 양일간 제주도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가졌으며,⁴⁹ 〈숨비소리〉는 같은 장소에서 4월 29일~30일 라이브콘서

48 분야별 상시 활동조직과 그 성원들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각 분과 위원회의 주축을 이루었다. 그래서 매년도의 4월제 주제에 걸 맞는 내용으로 분과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4월제는 한달 내내 제주시를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그 기본구조는 3월 31일의 전야제와 4월 1일부터 30일 사이의 문학제, 미술제, 음악제, 연극제 등의 분과별 행사들의 결합으로 짜여졌다. 전체 전야제의 참가 외에 추모노래 공연 등의 개별 행사들이 존재하였다.

49 안미정 연출, 송승현, 신성미 기획, 문광원, 오길호, 고봉기, 김대용, 고세실리아, 고현민, 송명환 등이 출연하였다(제1회 예술제 자료집, 1994).

트 'APRIL'을 가졌다.⁵⁰ 〈노래빛 사월〉은 1994년 제 46주기를 맞아 4·3노래집 [한라산이여]도 제작하여 보급하였는데, 이 노래집에는 '병문천에서', '한라산이여', '불의 섬', '불타는 섬', '아버지의 무덤',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세월', '고향(다랑쉬마을)', '햇묘의 노래', '불꽃 전사', '태양은 떠도 세상은', '협죽도' 등이 실려 있었으며, 이 노래들의 작사들은 대개 제주지역출신이 다수였지만, 지역에서 4·3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인물들의 글과 최상돈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기 새로운 단계의 4·3사건 관련 창작곡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5년 4월에는 〈노래빛 사월〉이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95 사월서곡 입산' 공연을 열었다.⁵¹ 같은 달 4·3예술제의 일환으로 22일과 23일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음악분과위원회 <섬하나 산하나>와 <숨비소리> 연합으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섬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노래공연을 가졌다. '한라산', '떠남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여', '성천포', '소리개',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슬픔이 기쁨에게' 등이 불리었다.⁵²

1996년에는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제3회 예술제가 수행되었고, 전야제 행사의 일부로 〈노래빛 사월〉이 추모 공연이 이루어졌다.⁵³ 이

50 오영민, 김성호, 양연숙, 김성현, 안현준, 김영미, 박현주, 박형식 등이 출연하였으며, 김형준, 신용훈, 김동수, 박경훈, 송호섭, 박정아가 스태프로 참여하였다(제1회 예술제 자료집, 1994).

51 이 공연은 여는 마당 [4·3을 모르는 우리들의 사월이야기], 푸는 마당 [숨겨진 제주 역사, 사라진 공동체 의식, 맺는 마당도민단결, 진상규명, 도민명예회복 등 3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불의 섬', '세월', '고향', '한라산이여', '서우젓소리', '입산', '잠들지 않는 남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이 불리었다. 이때, 고가영, 백인순, 이경숙, 조영록, 강근영, 좌으뜸, 고수미 등이 출연하였고, 입장료 4천원을 받기도 하였다(제민일보 1995년 4월 3일자 15면).

52 연출: 오영민, 노래: 안미정, 부경애, 고세실리아, 안현준, 김성호, 강석훈, 드럼: 한승규, 김대요, 건반: 고현민, 김영미, 베이스: 문광원, 기타: 강석훈, 초대: 김성현, 박유미(제2회 예술제 자료집, 1995). 이 공연도 입장료 5천원(학생 3천원)을 받았다(제민일보, 1995년 4월 3일자 15면).

53 이때 예술제 행사는 하나의 독립된 공연으로 치러졌는데, 길놀이, 초가계, 노래와 시, 민요, 풍물판굿, 씨김굿, 꽃놀이행사로 이루어졌다. 전야제는 제주시 남문로터리

시기는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이 가장 안된 부분이기도 하다.

1997년 4월 5일(토) 7시, 6일(일) 4시, 7시에는 [97 사월 서곡 쉼]이 문예진흥기금의 일부 지원을 받아 제주시 문예회관에서 공연되었다.⁵⁴ 자료집 서문에는 “공연을 준비하다보니 그동안 제주지역의 창작곡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이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공연은 음악위원회 회원들 중의 창작곡을 중심으로 선곡되었고, 그 외 음악적 수준이 뛰어난 곡과 공연을 위해 새로 선보이는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⁵⁵ 이 공연에서는 ‘화석’, ‘소리개’⁵⁶, ‘한라산이여’, ‘바람꽃처럼’, ‘있었지’, ‘입산’, ‘세월’, ‘밤이 오면’, ‘빨리 집에 갔으면’, ‘아니 안 되겠지요’, ‘헛묘의 노래’, ‘병문천에서’, ‘평화의 섬’, ‘잠들지 않는 남도’,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등이 불리었다.

1998년은 4·3사건 발발 50년이 되는 해로, <제주민예총>을 비롯한 문예운동 단체가 양적, 질적 팽창을 하게 되는 시점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내·외뿐만 아니라, 도내 안에서도 전혀 성격의 다른 단체들이 노래 공연을 통해 4·3을 추모하고자 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는 시점이기도 하였다.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50주년 ‘도민해원상생굿’은 전통의 무속과 현재의 노래운동의 결합을 보여준 시도이기도 하였다. ‘도민해원상생굿’은 열림굿-시왕맞이-살림굿1-질치기1-살림굿2-질치기2-만판-하

에서 탐동행사장까지 길놀이로부터 시작되었다(제민일보, 1996년 4월 1일 8면).

54 주관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회 음악위원회>, 주최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회>였다.

55 이 공연에서 가수로는 고훈, 조영록, 고가영, 고수미, 백인순, 부경애, 강근영, 우한균 등이 참여하였고, 반주에는 기타 김용철, 강석훈, 드럼 최상돈, 베이스(BASS) 문광원, 키보드 고명신, 김정현, 트럼펫 김현중, 음악연출과 음향에는 박형식, 편곡, 김영미, 조명 안현준, 총연출은 최상돈이 맡았다(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회 음악위원회, 1997).

56 고정국은 1988년 조선일보에 신춘문예로 등단하였다. 시집으로 ‘진눈깨비’, ‘겨울반딧불’ 등이 있다.

나되는 마당으로 구성되었는데, 시왕맞이, 질치기와 같은 단어들은 전통 무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이지만, 열림굿, 살림굿과 같은 단어들은 주최 측이 조합을 만들어낸 말로, 노래공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살림굿의 행사로 재일동포 가수 조박이 이상화 시에 곡을 붙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을 불렀고, 가수 안혜경, 장사익, 배우 김명곤, 제주민예총 음악위원회 소속 회원들의 4·3영령들을 위한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⁵⁷

독립적인 공연으로는 〈제주민예총 음악위원회〉 주최로 4·3사건 50주년 기념공연 [Since 1948 화석]이 4월 4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⁵⁸ 〈노래빛 사월〉 최상돈 대표가 총 연출을 맡은 이 공연은 〈섬하나 산하나〉, 〈노래빛 사월〉, 춤패 등의 연합무대로 ‘해원상생’을 주제로 하였다. 이날 공연은 4·3사건을 소재로 한 시에 곡을 붙인 제주지역 창작곡을 제주대 춤패 〈꾼〉의 율동과 함께 수행되었다.⁵⁹

57 4·3 50주년은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원 선거 등이 맞물리면서 4·3노래운동에 대한 새로운 주제들의 등장과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 시기 음악협회제주도지회(지회장 이춘기)주최의 4·3 50주기 진혼음악제가 4월3일 19시15분에 개최되었다. 제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이동호의 지휘로 제주시립교향악단과 제주시립합창단, 서귀포시립합창단이 협업을 이룬 대규모 합창 공연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소프라노 현선경, 메조소프라노 장현주, 테너 이현, 바리톤 김재창 등의 솔리스트가 출연하여 베르디의 ‘레퀴엠’전곡과 강문철 곡 칸타타 ‘4·3영령들을 위하여’가 공연되었다. 이것을 노래운동의 범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58 이날 공연에서는 노래 고희, 부순정, 오지은, 류승훈이 하고, 반주는 기타 강석훈, 베이스 김용철, 드럼 최상돈, 건반 김정현, 고명신, 트럼펫 김현중 등이 맡았다. 입장료 5천원도 있었다(제민일보 1998년 4월 3일 9면).

59 총 3부로 구성된 이날 공연은 도입부와 1~3부 등 총 4부로 구성되었는데, 도입부는 [레드헌트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아빠와 자전거’가 불리어졌다. 이곡은 영화 [레드헌트]의 제작과 관련한 서준식의 편지를 노래화 한 것으로 그때까지도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제지하고 있는 현실을 풀어낸 작품이었다. 오지은, 부순정의 이중창으로 불리었다(제민일보 1998년 4월 3일) 1부는 [사냥·4·3의 진상] 주제 아래 4·3사건의 실상을 묘사한 ‘입산’, ‘소년’, ‘헛묘의 노래’가 불리었다. 2부는 [화석·50년의 침묵과 강요의 세월] 주제 아래 ‘고향’, ‘바람꽃처럼’, ‘화석’, ‘세월’을 4명의 가수가 돌아가며 공연하였다. 이 공연의 타이틀 곡인 ‘화석’은 50년간 강요받은 침묵 속에서 굳어버린 현실을 화석에 빗대 표현한 곡이었다. 3부는 [금흔·해원 상생] 주제 아래 ‘금흔’과 ‘한라산이여’, ‘평화의 섬’이 공연되었다. 3부 주제곡 ‘금흔’은 결혼을 앞둔 연인

1999년 12월 16일 개혁입법으로서 ‘4·3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분위기는 노래운동이 더 활기를 띠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노래빛 사월〉과 〈섬하나 산하나〉는 함께 제7회 4·3예술제 노래공연 〈부활〉을 통해 지금까지의 4·3음악들을 모아 음악극 형태의 노래 공연을 선보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4·3음악들을 모아 계보를 엮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2000년 제8회 4·3 예술제에서 최상돈은 놀이패 한라산이 공연한 ‘애기동백꽃의 노래’ 주제를 선보였는데, 이 ‘애기동백꽃의 노래’는 이후 4·3예술제에서 가장 대중적인 곡으로 불리어졌다.⁶⁰

이 시기 제주의 노래운동은 민요운동이나 극 운동, 의례, 시위 등에서 담론의 생성자로서 함께 역할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이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Ⅲ. 4·3노래운동의 수행 형식

1. 수행 주체

4·3사건 당시의 문예운동은 노래운동이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 미술, 영상 등 대개의 4·3관련 문예운동들은 4·3사건이 훨씬 지난 후부터 시작되었지만, 노래운동은 사건 당시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4·3사건 당시의 사회적 정서 등을 현실감 있게 읽어낼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럼에도 그간 4·3노래운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들이 4·3사건으로 희생된 뒤, 50년이 지난 후손들에 의해 영혼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노래에 담아낸 것으로 해원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60 당시 팜플렛 등에도 나와 있듯이 이 노래는 전통5음계를 사용하여 창작되었는데, 이러한 전통 음계 사용은 이 노래가 이후 시기 4·3노래운동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노래 중의 하나가 되도록 하였다.

것은 4·3노래운동을 생산한 주체들에 대한 조명이 미약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4·3사건 이후에 재현된 문학, 미술, 영상 등은 그 생산주체에 대한 폭넓은 조명을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해온 측면이 있다. 문학의 김석범, 현기영, 김수열, 한림화, 미술의 강요배, 탐미협, 영상의 김동만 등, 노래운동을 제외한 다른 매체들은 명확한 생산 주체가 상정되었고, 민간 재생산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산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나 노래 운동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생산 주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가사나 음조 자체에 관심이 더 많았고, 노래를 부르는 불특정 다수가 다시 생산과 유포의 주체가 되면서 노래의 가사나 음을 만들어낸 원 생산 주체에 대한 관심은 다른 매체에 비해 약하였다. 모임의 장에서 함께 불리어지는 노래는 수행 면에서 대중들이 또 하나의 생산과 유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였기에, 다른 문예운동과 달리 다수의 대중을 포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직접적인 탄압을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4·3사건 관련 노래들에 그 생산주체인 작사와 작곡자를 찾아 정명을 붙여주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4·3사건 관련 노래들은 처음에는 작사 및 작곡자의 이름 없이 유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혹은 유포과정에서 혼재되는 양상도 띠었다. 노래 생산자의 이름들이 뒤늦게 기재된 경우는 해금 분위기 및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혼재되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표 3>과 같이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어’, ‘불타는 섬’, ‘세월’, ‘소리개’, ‘헛묘의 노래’는 작사가들이 누구인지 혼재되어 있다. ‘입산’, ‘화석’의 경우는 작곡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때로는 편곡자가 원작곡자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3〉 노래운동의 생산주체 기재와 흔재⁶¹

연번	노래 제목	작사가	작곡가	창작 및 첫 공연 추정년도	생산자명 기재/흔재 양상
1	그 항전의 밤	오영민	오영민	1990	1990 숨비소리 공연에 작사가 및 작곡가 미기재
2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어	김현종 김하균	김현종	1998	1998 집회 자료집에는 김현종으로 기재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서 김 하균으로 언급
3	불의 섬	오름 (장정훈)	오름 (장정훈)	1989	1989 오름 노래집 『불의 섬』에 나 타남 1994년까지 작사 작곡에 오름이라 는 노래패 이름 이은나 등은 장정훈으로 밝힘.
4	불타는 섬	빨치산가 이산하 시	김성훈	1989	1994 노래빛 사월 노래모음집에 이 산하 시라고 기재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창작 년도 1990년도 기재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빨치 산가 라고 기재
5	세월	이산하 최상돈	최상돈	1993	1994 노래빛사월 자료에 최상돈 작 사, 작곡으로 기재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창작 년도 1993으로 기재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이산 하 시로 기재
6	소리개	정호승 시 고정국 시 강석훈	고현민	1998	1995 섬하나산하나 숨비소리 공연 에는 정호승 시, 고현민 작곡 으로 기재 1997 제주민예총 음악위 공연에서 는 고정국 시, 고현민 작곡으 로 기재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강석 훈 작사로 기재
7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청년문학회 (김경훈)	우리노래 연구회 (강동조)	1990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김경 훈, 강동조 기재

61 본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연번	노래 제목	작사가	작곡가	창작 및 첫 공연 추정년도	생산자명 기재/흔재 양상
8	입산	김수열 시	우리노래 연구회 (김성훈) 박유미 곡, 최상돈 편곡	1989	1997 제주민예총 음악위 공연에서 는 박유미 곡, 최상돈 편곡으 로 기재 1998 섬하나 산하나/노래빛사월 공 연 박유미 곡으로 기재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김성 훈 작곡으로 기재
9	있었지	오영민	오영민	1990	1993 노래빛 사월 공연 시 이름 미 기재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창작 년도 1991로 언급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오영 민 이름 기재
10	태양은 떠도 세상은	김경훈	오영민	1991	1994 노래빛사월 노래모음집에 작 사가, 작곡가 기재
11	하나되는 노래	김수열	최상돈	1991	1991 선하나산하나 공연시 이름 미 기재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김수 열, 최상돈 기재
12	한라산에 첫 눈 내리니 (고양용 찬열사추모...)	-	-	1991	1991 섬하나산하나 공연에 작사가 작곡가 미기재
13	햇모의 노래	한전후 최상돈	최상돈	1992	1992 노래빛사월 공연에는 한전후 작사로 기록 1994 노래빛 사월 노래 모음집에 '사월 글'로 기록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최상 돈 작사로 기록
14	화석	양애선	김영미 최상돈	1997	1997 제주민예총 음악위 공연에는 김영미 작곡으로 기재 1998 섬하나산하나/노래빛 사월 공 연에는 최상돈 작곡으로 기재 2006 제주민예총 아카이브에 김영미 작곡으로 기재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래패 소속 회원들이 생산주체였으며, 그들과 연대하는 단체들을 통해 새롭게 변모하면서 노래운동의 동력을 생성해냈다. 확산 측면에서 4·3노래운동의 시기별 생산주체와 연대 단체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4·3노래운동이 본격적인 태동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 및 대학중심의 학생운동과 맞물리면서 제주대학교 학생 및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4·3노래운동의 주요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숨비소리〉, 〈우리노래연구회〉, 〈섬하나 산하나〉, 〈노래빛 사월〉 등이 탄생하였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대개 20~30대였는데, 다른 매체들의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이었다. 20대 젊은 연령층이 노래운동의 주도 세력이 되면서 4·3문제운동 내부의 역학관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강력한 전문성을 무기로 무장한 미

〈표 4〉 4·3진상규명운동시기 노래운동의 수행 주체

시기	생산주체	주요 구성원	연대 단체	창립년도	비고
4·3 노래운동 태동기 (1986~1993)	숨비소리	한재준 외	제주문화예술 운동연합	1986?	1995년 해산
	우리노래연구회	김민수 외	제주문화 운동협의회	1987	-
	오름	장정훈 외	-	1989?	재경문화패
	섬하나 산하나	양윤호 외	제주문화 운동협의회	1991	1991년 우리노래 연구회에서 분리
	노래빛 사월	최상돈 외	-	1992	-
4·3 노래운동 확산기 (1994~1999)	숨비소리	오영민 외	한국민예총 제주지회	1986?	1995년 해산
	섬하나 산하나	안미정 외	한국민예총 제주지회	1991	2003년 노래세상 원으로 통합
	노래빛 사월	최상돈 외	한국민예총 제주지회	1992	2003년 노래세상 원으로 통합

술, 영상, 소설, 사설 등에 비해 노래운동에 참여한 주체들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인에 가까웠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청소년 시절부터 미국의 팝문화를 비롯하여 한국의 포크 문화 등을 받아들이고, 즐겼으며, 어린 시절 피아노 등 서양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접하였던 신세대였다.

짐멜이 말한 것처럼 음악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음악의 객관적 특징으로 인해 동일한 악곡 및 악보 재현이 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비전문가인 일반 학생들도 노래 창작이 가능하였던 것은 음악의 정규 교육을 통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들이 대학을 진학하였을 때, 대학가는 학생운동이 한창이었고, 학생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위치를 음악의 객관성을 이용하여 노래운동으로 만들어냈다.

인적 자원의 공급은 주로 제주대학교 노래패 등을 통해 공급되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활동 구성원들이 제주대학교 출신들이었다. 초창기 4·3진상규명운동 및 노래운동의 전면적 지원은 〈제주문화운동협의회〉 등의 문예조직이 큰 자원적 역할을 하였지만,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제주교육대학, 제주전문대학 등에서도 학과별, 단과대학별, 동아리별 등의 수많은 노래패들이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때때로 협의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이 자원들은 〈제주문화운동협의회〉의 문예운동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예술제의 인적 자원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⁶²

62 당시 제주도내 대학 노래패들의 활동도 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주대의 경우 동아리연합회 소속의 노래패 〈소리열〉을 비롯해 인문대 〈불비〉, 경상대 〈터울림〉, 법정대 〈한소리〉, 사법대 〈참소리〉, 공과대 〈토래〉, 해양대 〈소리바당〉, 야간강좌부 〈소리로 크는 나무〉 등이 구성되어 노래 운동의 다양한 층위를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1989년부터 〈제주대〉, 〈제주교육대학〉, 당시 〈제주전문대(현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학〉 등 4개 대학 총학생회 협의체였던 〈제주지역총학생협의회〉는 지역현안 문제와 민주주의 실현, 통일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전국대학생협의회(1987-1992)〉와 연계 활동을 펼쳤는데, 노래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대학 노래운동이 이처럼 활발히 전개된 이면에는 기존의 〈숨비소리〉와 〈우리노래연구회〉의 영향도 있었지만 1988

이 토대는 이후 4·3노래운동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지만, 비전문성과 낮은 연령 층위는 곧 4·3담론 주체들 간의 역학관계에서 이들의 활동을 하위적인 것, 부수적인 것, 비전문적인 것으로 배치되거나 평가되도록 하였으며, 다른 매체의 자료들이 충실히 보관되는 동안 이들의 자료들은 곧 유실로 이어졌다.⁶³ 이것은 4·3노래운동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약화시켰다.

또한 그 생산 주체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다른 담론 매체들의 생산 주체들은 생산과 동시에 그 주체나 이름이 곧 밝혀지거나 언급되었지만, 노래운동의 경우 그 창작자가 밝혀지는 데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시간이 소요되었다. 오영민, 최상돈, 한재준 등의 노래들은 후에 와서야 창작자들을 밝힐 수 있었다.⁶⁴ 처음 악보에는 작곡 및 작사자들의 이름들이 무기명이었거나 가명을 사용하다가 차후에 해금 분위기와 더불어 이름들이 기재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4·3노래운동의 장은 연대조직이 생겨나면서부터였다. 〈제주문화운동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등의 연대조직이 생겨나고, 한국문예운동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그 속에서 노래운동의 생산주체들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진상규명운동의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1994년 합동위령제를 기점으로

년부터 〈전국대학생협의회〉이 마련한 전국대학생 통일노래 한마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통일노래한마당은 1988년 8·15남북학생회담 계획을 위한 연세대 집회에서 제기되었던 '대학문화의 창조상과 현실상의 반영'이라는 취지에서 매년 마련되었는데, 제주지역에서는 1990년을 제외하고는 1988년 〈제주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소속 〈소리열〉, 1989년 인문대학 〈불피〉, 1991년 〈단과대학 문화협의회 노래분과〉가 참여하였다. 이 같은 노래운동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음악위원회〉 소속의 〈노래빛 사월〉,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민요패 〈소리앗〉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양상을 띠었다(좌승훈, 2003년 10월 30일 기사)

63 대학생들이 그린 길게 그림이 전부 유실된 것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64 전문가들을 연행하는 것은 사회적 이슈가 컸지만, 대학생을 연행하는 것은 그에 비해 큰 걸림돌 없이 가능했기에 그들은 큰 억압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런 두려움들은 곧 매체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월제가 추모제가 아닌 예술제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노래운동은 운동성 보다는 공연성에 중심을 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4·3노래운동은 다른 문예운동과 달리 진상규명운동 당시 특별히 주제 문제에서 그 대척점이 없었다는 특수성도 있다. 문학에서도 문학인들 사이에서 극명한 담론 투쟁이 있었고, 미술에서도 있었다. 4·3노래운동의 담론투쟁은 오히려 제도화 이후 나타났다. 추모제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국가/지방 정부 소속의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등의 매체들과 담론 투쟁을 벌이는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2. 수행 시·공간

문예운동이 담론투쟁을 벌이면서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 중의 하나는 시간 및 공간과 같은 기본적인 질서에 새로운 규칙을 입히려는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노래운동 역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구획을 통해 자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토대를 보다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왔다. 노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같이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연대가 가능하고, 집단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노래운동을 통해 개인에게 각인된 시각과 공간, 그리고 그 내용은 상상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

노래는 그 가사 안에 담론투쟁의 시간과 공간적 요소를 담아낼 수도 있고, 혹은 노래를 수행하는 시점과 공간의 점유를 통해 담론투쟁의 한 방식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의례는 담론투쟁 과정에서 시·공간에 대한 투쟁이 가장 격렬하였지만, 노래운동과 같은 담론 매체들의 시·공간 점유는 의례에 비해 보다 용이하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진정한 의미의 4·3노래운동이 나타났을 때, 4·3 사건을 재현하는 창작노래들은 1948년 4월에 시간적 초점을 맞추면서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미래의 통일까지 노래하는 시간적

〈표 5〉 수행 시·공간

구분	수행 일시	주체	공연 주제	재현시점	장소
4·3노래 운동 태동기	1989년 4월 1일~2일	우리노래연구회	그해 4월, 그리고...	1948년 4월 이후	-
	1990년 4월 5일	우리노래연구회 /숨비소리	잠들지 않는 남도	1948년 4월	사강문화센터
	1990년 6월 23일~24일	숨비소리	그날이 올 때까지		사강문화센터
	1991년 12월 21일~22일	섬하나 산하나 (정기공연)	섬하나 산하나 그리고 노래하나	1948년 4월 이후	제주대학교 2동 중강당
	1992년 5월 23일~24일	노래빛 사월	4월은, 5월은	1948년 4월 이후	제주대학교 2동 중강당
	1993년 4월 1일	노래빛 사월	사월 서곡, 1948년 4월 3일	1948년 4월	가톨릭회관
4·3노래 운동 확산기	1994년 4월 1일~2일	섬하나 산하나	4·3노래공연 '진혼'	1948년 4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1994년 4월 29일~30일	숨비소리	라이브콘서트 APRIL	1948년 4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1995년 4월 22일~23일	섬하나 산하나 /숨비소리	섬의 하나됨을 위하여	1948년 4월 이후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1995년 4월 8일	노래빛 사월	95 사월 서곡 '입산'	1948년 4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1996년	노래빛 사월	-	-	-
	1997년 4월 5일~6일	노래빛 사월?	97 사월 서곡 '췌'	1948년 4월	문예회관
	1998년 4월 4일	노래빛 사월	Since 1948	1948년 4월 이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1999년 4월 4일	섬하나 산하나	기억이 아파올 때	1948년 4월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1999년	노래빛 사월 /섬 하나 산 하나	부활	1948년 4월 이후	-

연계성을 창조해갔다. 그럼으로써, 4·3사건이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4·3노래운동에는 4·3사건 관련 노래 외에도 ‘사월 그 가슴 위로’, ‘오월의 노래’, ‘애국의 길’과 같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다루는 노래들이 같이 불리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4·3노래운동 태동기의 공연주체들도 4·3사건 이후를 이야기함으로써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4·3사건을 한국사의 시계열성에 편입시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특히 확산기 접어들면서 4·3사건의 원초적 사건 시점에 더욱 집중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노래운동의 축소라기보다는 4·3 진상규명운동이 확산되면서 동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1948년 4·3사건의 원초적 시점에 집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재현 시점의 거대한 시간적 궤적에 비해 선택된 공간은 한라산, 오름,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제주민의 한과 분노, 항쟁(투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기 공연된 노래들은 제주지역 현안문제와 4·3사건을 드러내는 노래들로 채워졌는데, 항쟁과 학살의 공간이었던 한라산 및 오름 학살터, 4·3사건 당시 잃어버린 마을 주거지 등이 다시 골프장 등 개발 공간으로서 변모하는데에 대한 저항을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를 있게 한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하고 재평가하는 형식으로 노래운동이 전개되면서 노래가 사회적 발언이나 담론투쟁의 장을 열었다.

1992년 다랑쉬굴의 유해발굴은 4·3사건 진상규명에서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듯이, 노래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4·3노래운동의 시점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막연히 구전되고 있던 학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초적 사건 당시를 조명하고 형상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이 시기 ‘항쟁’보다는 ‘학살’의 감성에 호소한 가사들이 훨씬 많이 생산되었으며, 직·간접적으로 4·3사건이 발발된 시점 및 토벌대에 의해 죽

임을 당한 시점을 담아내어 원초적 사건 발발 당시의 비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사건의 항쟁성은 관련된 보수 세력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비극성은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잠재적 인적 자원들을 결집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노래운동의 항쟁적 성격과 비극성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을 드러냈는데,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의 노래가 항쟁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시·공간적 초점에 비중이 있었다면, 1990년대 중반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양민학살이라는 논조로 사회적 논의가 접어들 즈음에 노래운동 또한 양민학살의 시점에 맞춰져 갔다. 또한 항쟁을 주장하던 시기에는 ‘4월’ 시·공간 집중에 대한 반대급부가 컸으나, 학살이라는 담론이 부상하였을 때, ‘4월’ 반대에 대한 담론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곧 노래운동의 시공간은 ‘4월’로 집중되어 갔다.

수행되는 과정에서 4·3노래운동은 재현대상의 시점으로서 과거의 4월과 재현수행 시점으로서 현재의 4월이라는 시공간을 중첩시킴으로써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4·3의 연계성을 창조해냈다.

3. 수행 형식

수행 형식에서도 음악적 형식과 노래 유포 형식 등 두 가지로 수행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음악적 형식에서 진상규명시기의 4·3노래운동은 크게 행진풍이나 서정성을 강조하는 두 개의 형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3/4와 4/4, 6/8 박자 등을 사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부를 수 있는 형식이 나타났다. 특히 수집된 자료를 통해 보면 4/4박자의 단조풍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래운동 확산기에는 굿거리 장단이나 서우젯 소리 등 민요풍의 노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는 서구문화에 대한 회의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통 5음계 등을 사용하여 ‘한’이나 서정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작곡가 및 작사가 개인의 선호성에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사회적 환경과 노래운동의 경향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악보에도 ‘빠르게’ 혹은 ‘느리게’ 표시 대신에 ‘분노의 마음으로 부르기(결사대 출정가)’, ‘힘 있게(하나되는 노래)’, ‘무게 있게(협죽도)’라고 적혀 있는 것도 노래운동 악보에서 나타나는 한 특징이기도 하다.

노래가 발표되고 불리어지는 유포 형식에서는 노래패를 이용한 문예선전, 추모제, 시위/집회, 공연, 예술제, 노래집이나 노래 테이프 배포 그리고 노래 보급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⁶⁵ 문예선전이나 추모제, 시위/집회 등에서 해당 장소에 모인 사람들의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터너(Turner, 2005)가 언급한 코뮤니타스(communitas)를 이루게 하여 인적 자원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노래운동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사회운동가들을 결집시키고 행동하는데 중요한 내면화 과정을 부여하는 자원이었다. 집단적인 노래는 참여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형성시키고 집단 감정 상태를 유발하여 공동체성을 발휘하여, 마음을 치유하는 힘까지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어떤 수행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노래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어, 수행 형식의 중첩성이 나타났다.

4·3노래운동 태동기에는 추모제 등에서 다른 매체들과 함께 동원되어 경합 과정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추모제 수행 초기에는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장치로 추모제 행사 앞에 배치되었다. 그러다 점차 추모제의의식이 부상하고 그 주체세력들이 힘이 커지면서 노래공연은 추모제의 부대 행사처럼 부수적인 것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주

65 다른 지역의 노래패들의 형식 또한 비슷하였다.

〈표 6〉 4·3노래운동에서 나타나는 노래 형식

연번	노래 제목	작사	작곡	창작 혹은 첫 공연 추정년도	형식
1	겨울나라	-	김제섭	1990	장조 4/4
2	결사대 출정가	-	최상돈	1992	장조 4/4 분노의 마음으로
3	고향(다랑쉬마울)	최상돈	최상돈	1994	단조 4/4
4	그 향전의 밤	오영민	오영민	1990	단조 4/4
5	그날이 올 때까지	임미경 시	오영민	1990	단조 4/4
6	남도의 비	-	-	1993	단조 3/4
7	병문전에서	최상돈	최상돈	1994	단조 4/4
8	봄 그 하나의 생각	양혜숙	한재준	1987(창작)	단조 4/4
9	불꽃 전사	김유경	최상돈	1992	굿거리.→12/8, 단조
10	불의 섬	오름 (장정훈)	오름 (장정훈)	1989	장조 4/4
11	불타는 섬	빨치산가 이산하 시	김성훈	1989	단조 4/4
12	새벽을 기다리며	최상돈	최상돈	1992	단조 4/4
13	서우젓소리	-	-	1995	민요
14	아버지의 무덤	-	-	1993	단조 3/4
15	일어서는 사람들	-	-	1991	장조 4/4
16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청년문학회 (김경훈)	우리노래 연구회 (강동조)	1990	단조 4/4
17	제주도민의 노래	최상돈	최상돈	1992	장조 4/4
18	태양은 떠도 세상은	김경훈	오영민	1991	단조 4/4
19	하나되는 노래	김수열	최상돈	1991	단조 4/4 힘있게
20	한라산	이산하	우리노래 연구회	1989	단조 3/4
21	한라산에 첫 눈 내리니 (고양옹찬열사추모...)	-	-	1991	단조 6/8

연번	노래 제목	작사	작곡	창작 혹은 첫 공연 추정년도	형식
22	한라산이여	고창훈	최상돈	1994	단조 4/4
23	한라여	-	-	1989	단조 4/4
24	헛묘의 노래	최상돈	최상돈	1992	단조 4/4
25	협죽도	박용배	최상돈	1992	장조 4/4 무게 있게

었다. 이는 담론 매체들 간의 경합 속에서 탈각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4·3위령제와 예술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4·3노래운동은 예술제로 전이 혹은 탈각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집회에서의 수행은 노래운동에서 가장 폭발적인 영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고, 담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내면화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4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여왔는데,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대학생대표자(일명 전대협)〉을 통해 전국적으로 ‘4·3민중항쟁계승’ 집회가 개최되면서 4·3노래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은 4·3사건에 대한 인식의 확산 속도를 높였다. 때문에 금기 혹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4·3진상규명운동이 본격화되고, 제도권 내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노래운동은 보다 합법적인 장에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공연은 추모제나 집회와 달리, 노래운동만이 오롯이 선 자리였다. 이 자리는 여러 창작곡이 선보이는 장이 되기도 하였고, 노래운동의 계보를 만드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 첫 공연부터 4·3사건을 재현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점차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을 연계하면서 4·3사건이 가지는 국내사적 맥락을 형성시켰다. 당시 4·3사건에 대한 역사

적 접근과 논의가 미비하였던 것에 비해 이런 작업들은 4·3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역사적 계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수행 형식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4·3노래운동이 노래 공연 또는 추모제, 집회 수행 외에도 4·3노래테이프를 제작하여 학생, 시민 사회 등에 보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⁶⁶ 또한 문화예술운동 단체들 간의 연합 공연, 극음악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규모가 있는 대 공연들이 마련되어 갈 수 있었으며, 전통적인 의례 방식을 적용하여 공연 구성이 시도되기도 한 시점이기도 하였다.

4·3노래운동은 전반적으로 다른 담론매체들과 달리, 4·3사건에 대한 주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문제들을 함께 녹여 내어 다룸으로써, 지역민의 삶과 지역 현장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새롭게 입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4. 수행 담론

4·3진상규명운동시기, 4·3노래운동이 수행한 담론은 노래운동 주체가 생산한 가사와 맥락 등을 통해 다루어볼 수 있다. 또한 수행에서 어떤 담론을 선택해서 유포할 것인가가 고려된다. 생산된 가사들만 놓고 본다면 4·3노래운동의 태동기와 본격적인 확산 과정에서의 담론은 차이가 있다. 4·3노래운동 태동기에 ‘항쟁’, ‘학살’ 등이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항쟁’에 대한 시각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 시기 주요 단어들은 빨치산, 입산, 한라산, 출정, 불, 섬, 남도, 진혼, 투쟁 같은 단어들이었다. 반면 확산기에는 도민, 통일, 햇묘, 불타는 섬, 세월, 고향, 침묵, 강요, 화석 등과 같은 단어들이 부상하였다. 이는 ‘항쟁’에

66 노래테이프 제작은 〈우리노래연구회〉를 통해 시도되었는데, 1집 제작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2집(1988년 3월, ‘이어싸 쳐라 어기야 쳐라’), 3집(1988년 8월 ‘통일노래 모음집’), 4집(1989년 6월 ‘그해 4월 그리고’), 5집(1991년 4월 ‘불의 섬’)을 제작 보급하였다(섬하나 산하나, 1991).

대한 담론이 ‘학살’이라는 담론으로 변모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담론은 평화와 통일을 연계하는 담론으로 다시 이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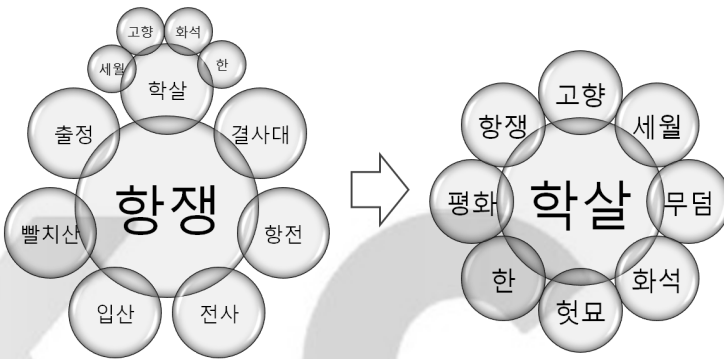
노래운동의 수행에서도 담론 선택은 중요하다. 어떤 담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포시킬 것인가? 또한 담론의 위계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태동기와 확산기에 선택 담론들은 담론의 위계질서와 다층적 구조 안에 있다가, 담론을 둘러싼 외부 환경 변화와 표상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택된 주요 담론들은 그것을 돕는 하위 담론이 존재하며, 그것은 주요 담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노래운동 태동기에 항쟁의 담론을 강화시키는 하위담론으로 결사대, 항전, 전사, 불, 불꽃, 새벽, 입산, 빨치산, 태양, 한라산, 진혼, 투쟁, 학살과 같은 담론의 층위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그 언어들에 힘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에 알맞은 노래의 곡조와 형식들이 동원되었다. 가사는 서사적이며, 곡조는 단조류의 음이 강하였다.

반면 전단계 항쟁보다는 하위 담론 구조에 존재하였던 ‘학살’ 담론이 4·3진상규명운동의 확대와 더불어 급속히 부상하면서 노래운동 확산기에는 ‘항쟁’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학살’의 하위담론에 존재하던 고향, 금혼, 밤, 집, 세월, 아버지, 무덤, 애기, 증언, 집, 평화, 화석, 햇모, 한과 같은 언어들이 부상하고, 비극성을 강조하는 서정적 노래의 형식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항쟁’의 담론과 그 하위담론들은 다시 가라앉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4·3노래운동에서 담론은 홀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대 담론과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며, 또한 하나의 담론은 여러 언어구조와 담론 덩어리들로 구성되어져 맥도넬이 말한 담론의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표 7〉 4·3노래운동 담론의 층위

항쟁	학살
결사대, 항전, 전사, 불, 불꽃, 새벽, 입산, 빨치산, 태양, 한라산, 출정 등	고향, 금혼, 밤, 집, 세월, 아버지, 무덤, 애기, 증언, 집, 평화, 화석, 헛묘, 한 등



〈그림 1〉 4·3노래운동에서 드러나는 담론의 위계 질서

Ⅳ. 4·3진상규명운동과정에서 노래운동의 사회적 의미

1. 인적·물적 자원의 구성과 결합을 통한 민주시민공동체 형성

문예운동은 인적 자원 못지않게 확산과정에서 물적 자원 동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4·3노래운동의 물적 자원 동원을 살펴보는 것은 4·3노래운동의 확산 변인을 파악하는 한 요소로서 중요하다. 또한 이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은 민주시민공동체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회적 의미를 받

〈표 8〉 노래운동 태동기의 물적 토대

시기	공연명	주관/주최/공식후원	기타 후원
1989	41주기 4·3추모제 : 4·3노래공연 “그해 4월, 그리고…”	주관: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우리노래연구회 주최: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 후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통일민주당 제주시지구당 김성범, 제주사회 연구소 설립준비위원회, 제주4·3연구소설립 준비위원회, 서울제주사회문제협의회, 소릿 골(레코드, 테이프, 악기), 제주도문예연구소 소장 김용해, 제주교사협의회, 제주지역총 학생회 협의회, 주간여성신문, 제주서림(대 학교재), 모카 커피숍(시청 후원 대학생)
1990	42주기 4·3 4월제 : 노래발표회 “잠들지 않는 남도”	주관: 노래패 숨비소리, 우리노래연구회 주최: 42주기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 후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월제 전체〉 주간여성신문, 제주4·3연구소, 전교교직원 노동조합제주지부, 도서출판 우리교육, 반석 인쇄사 〈노래발표회〉 채기선 미술연구실, 하나로 영상, 카페 잃어 버린 시간을 찾아서, 반석인쇄사, 대원당구 장, 삼나무식당, 소릿골
	숨비소리 노래발표회: 그날이 올때까지	주관: 노래패 숨비소리 주최: 노래패 숨비소리	반석인쇄사, 커피숍 쥬노, 민속주점 샤또, 중문천재속셈학원
1991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첫 번째 정기공연 “섬하나 산하나, 그리고 노래하나”	주관: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주최: 제주문화운동협의회	개별시민, 제주대학교 탐라민속문화연구회, 장수횃집 대표 장태성, 금성통신대리점 대표 최상민, 반석인쇄사,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유명메이커상설할인매장 대표 고수삼, 지구 중기 대표 양유순, 제주총포사 대표 우재준, 원 커뮤니케이션,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보람속셈학원, 풍물장터 걸궁, 하안성 대표 김인곤, 통신장비 이승호*
1992	노래빛 사월 첫 번째 노래한마당	주관: 노래빛 사월	제주문화운동협의회 섬하나 산하나, 제주대 야간강좌부 노래패 소리로 크는 나무, 제주 대 농업경제학과 노래패 흙소리, 한라상공, 핸드워빙, 피아노조율사 김충희, 제주지역사 회문예연구소, 음악감상실 돌반, 신용종합기 획, 등대, 금성통신대리점/금성사총판매장, 에이스 영상/사진기획, 코렉스, 시민 흥성윤
1993	사월서곡 “1948. 4·3”	주관: 노래빛 사월	-

생시킨다.

4·3노래운동 태동기 기본적인 물질 토대는 4월 추모제를 후원하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지회〉 및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같은 민주시민단체들이었다. 노래 공연에 대한 별도 후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4월 추모제를 통해 정치권, 민간연구소, 시민단체, 교육계, 언론, 서점, 식음료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개인 및 단체들이 후원자로 참여하였고, 그 물질 토대는 노래운동의 확산 토대가 되었다.

1990년대 이르러 인적 자원의 토대와 창작곡들이 쌓이면서 단독 공연이 가능해졌고, 이때에는 오롯이 노래공연만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들이 생겨났다. 민주시민이라고 하면서 얼마를 후원하는 개인들이 있는가 하면,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신문, 민간연구소, 출판/인쇄소, 학원, 당구장, 학사주점 및 음식점, 카페/커피숍, 통신기기 판매사, 총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 및 단체들이 이 노래 공연을 후원하였다.

이들은 섬 지역의 특성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후원에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1980년대 대학가에서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였던 시민들이기도 하였다. 각 시민들이 하나의 공연 및 작품에 후원한 것은 4·3 문예매체들 중에 노래공연이 유일하였다. 따라서 이 계기를 통해 노래운동의 공간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4·3문예운동과 사회 사이의 벽을 허물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이는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1994년 합동위령제가 형성되고, 문예운동이 예술제에 제한되면서, 4·3예술제 전체 예산 안에서 물질 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오히려 시민들에 의한 물질 토대 제공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4년 예술제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주최로 일원화되고, 시민들의 후원이 예술제로 일원화되면서 개별 노래 공연에

〈표 9〉 노래운동 확산기의 물적 토대

시기	공연명	주관/주최/공식후원	기타후원
1994	46주기 4·3추모공연 :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진혼"	주관: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제1회 제주4·3예술제운영위원회) 주최: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4·3예술제 전체〉 우생당서점 아일랜드관광호텔 민주당제주시지구당위원장 양승부 제주이동통신
	94 숨비소리 라이브콘서트 "APRIL"	주관: 숨비소리 (제1회 제주4·3예술제운영위원회) 주최: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4·3예술제 전체〉 우생당서점 아일랜드관광호텔 민주당제주시지구당위원장 양승부 제주이동통신
1995	4·3추모노래공연 "섬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관: 민예총 제주도지회 음악분과위원회 주최: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4·3예술제 전체〉 홍도갈비 골든·듀 제주점/신제주점 (주)제주합동양조
1996	전야제 행사 참여	주관: 민예총 제주도지회 음악분과위원회 주최: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4·3예술제 전체〉 골든·듀 제주점/신제주점 서귀포 우생당 서점 제주서적 고센 커피숍·경양식 제주도의회 (주)제주합동양조
1997	자료 미수집	자료 미수집	자료미수집
1998	도민해원상생굿 살림굿 참여	주최: 제50주년 제주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후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도4·3사건 50주년사업대판실행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4·3예술제 전체〉 제주시의회 아·태평화재단후원회 제주도지부 제주은행 파피루스 미술출판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주)제주합동양조 개별 추진위원으로 242명 확보
1999	4·3노래공연 "기억이 아파올 때"	주관: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주최: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음악분과위원회	〈4·3예술제 전체〉 제주4·3사건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주진위원회 제주4·3사건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제주도, 제주은행

대한 시민들의 지원은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조금 더 큰 규모의 업체들이 예술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노래공연은 예술제 행사 하나로 귀속되었다. 특별히 50주년을 반백년 시점으로 개별 추진위원 242명이 확보되어 의미가 있었지만, 단발성으로 끝나 버렸다.

2. 원초적 사건의 역사적 재현과 담론화

4·3노래운동은 4·3의 원초적 사건을 재구성하고 담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내면화시키는데 매우 효율적이었다. 4·3노래운동 태동기 항쟁 담론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였던 노래는 안치환의 ‘잠들지 않는 남도’였다. 이 노래에서는 ‘반역의 세월’, ‘통곡의 세월’,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추상적이지만, 4·3의 원초적 사건을 ‘항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였다. 이 시기 노래 ‘한라산’에는 ‘주검’, ‘저들 가슴에 칼날을 꽃고’, ‘해방의병’ 등과 같은 항쟁을 구성하는 노랫말들로 이루어졌다. 노래 ‘그날이 올 때까지’에는 “4·3항쟁의 후에들. 군부독재, 창을 깎아 들고 싸우리” 같은 항쟁적 언어들을 구성되었다. 한편 학살의 담론은 서서히 작은 마을 단위의 역사적 사실들을 다루기 시작하였는데, 진상규명운동이 확대될수록 노래운동의 노래가사들은 마을의 피해와 희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강화하는 과정들로 이어졌다.

이 과정은 마치 4·3곳의 본풀이를 연상하게 하는 사설들처럼 구성되어갔다. ‘헛묘의 노래’, ‘섯알오름의 한’ ‘증언(백조일손)’은 섯알오름에서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내용으로 현재의 대정읍 ‘백조일손 지지묘’와 한림읍 ‘만병디묘’의 사연을 담았다. ‘헛묘의 노래’에는 시신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저 무덤엔 누가 누었나. 저 이름 없는 작은 무덤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데 빈 무덤. 정방폭포 위에 몸을 이

어 묶어 놓고 총알을 아끼려고 떨어뜨리더니. 파도타고 사라지는 우리네 영혼들. 썩어문드러졌으니 찾을 길 없네”

‘동광마을 큰 냇개’는 1949년에 동광마을 ‘큰 냇개’에 숨어 있다가 희생당한 동광마을 사람들을 기리고 있는 노래이다. 1948년 11월 21일 국방경비대 제9연대에 의해 마을주민들이 폭도로 간주되어 학살당하자, 주민들이 ‘큰 냇개’라는 동굴로 피신하여 60여 일 간 지내다가 발각되어 서귀포 정방폭포에서 희생당하였다. 2016년에는 영화 ‘지슬’을 통해서 유명해진 장소로, 노래 ‘동광마을 큰 냇개’는 토벌→초토화→피신→발각→학살이라는 서사 구조를 담고 있다.

‘고향(다랑쉬마을)’은 1992년 다랑쉬굴 및 유해 발견이 모티브가 되어 만들어진 곡으로 “달이 뜨면 좋으련만, 어둠만 깊어. 대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만 불고. 말라붙은 우물가에 인적은 끊겨. 내 고향 다랑쉬엔 주검이 덧 쌓이네. 동구 밖에 팽나무 가지 위로 목이 메이고. 들녘 동굴 속엔 피어나는 연기 사이로 내 어머니 나의 형제들 검게 그을린 눈매. 나를 보는 그 얼굴엔 분노의 한이...침묵의 다랑쉬야 말 하려마”라는 가사는 다랑쉬 마을과 다랑쉬마을의 학살과 현장을 담고 있다.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는 4·3사건으로 인해 잃어버린 마을들을 연상시킨다. 곤을동(제주시 화북동), 리생이(제주시 해안동), 어우늘(제주시 오라동), 원동(애월읍 상가리), 자리왓(애월읍 봉성리), 영남동(서귀포시 영남동), 무등이왓(안덕면 동광리), 삼밭구석(안덕면 동광리) 등은 4·3사건으로 인해 마을이 없어져 버린 곳들이다. “거센 바람 아득한 벼랑 끝. 뒤돌아보는 닥쳐오는 검은 먹구름. 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사삼에 부모 잃고 정든 마을 쫓겨나. 이제는 땅마저 빼앗겨버렸네. 한 맺힌 세월 모진 바람 뚫고. 우리는 가야하네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라는 가사는 토벌대에 의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소개령, 마을의 전소(全燒), 주민의 희생, 복구되지 못한 마을에 대한 서

사를 담고 있다.

이렇듯 4·3노래운동의 특징은 태동기에는 항쟁을 형상화하는 가사와 침묵하는 학살에 대한 사건들을 추상적이거나 재구성하는 단계였다면, 확장기에는 4·3사건 하나하나의 역사적 사실들을 노래 가사로 재구성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었다.

한편 원초적 사건 경험자들의 심정들을 담아내는 노래들도 나타났다. 4·3사건으로 인한 소개와 마을을 떠나는 심정, 부모의 부재에 대한 암담함, 빼앗겨 버린 땅에 대한 서러움, 사라져 버린 고향에 대한 비탄 등을 담았다. 이 과정은 대부분의 제주사람들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노래 생산 주체 또한 피해 공동체의 후세대로서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있었던 4·3노래운동만의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더불어 다시 재건의 의지를 드러내는 ‘일어서는 사람들’에서는 ‘밟힐수록 돌아나는 보리싹처럼’, ‘찬바람에 흔들릴수록 강해지는 역새처럼’ 등. 전체적으로 4·3노래들은 저항→학살→고난→재건 등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저항’과 ‘항쟁’이 상실되고, 재건에서 ‘평화’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그 시점에서 ‘애기동백꽃의 노래’가 부상하기도 하였다.

이런 담론화 과정은 4·3사건의 역사적 사실들을 가사로 재현하면서 곡조와 더불어 개인 및 집단의 내면에 공고히 자리 잡아 갔는데, 이는 4·3진상규명운동의 내면 동력 및 상상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동력이 되었다.

V. 결 론

한국 문예운동 및 노래운동 전체에서 단독 사건에 대해 이만큼 많은 창작곡들이 만들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4·3진상규명운동이 진행

되는 동안 많은 창작곡이 발표되었고 불리어졌다. 진상규명운동과정에서 활약하였던 노래운동의 위상에 비하여 연구가 미진한 것은 각 담론 주체들 간의 경합과 탈락 등의 역학관계, 작사 및 작곡자에 대한 미기재, 다른 자료들에 비해 큰 자료 유실, 그리고 그 중요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문예활동을 정치적 활동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경시풍조가 한 몫을 하였다. 또한 4·3노래들은 좋은 작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에서 주로 소비되어 왔다. 이를 두고 이은나는 지방성이 주류문화에 합류할 수 있을 때, 제주의 기억은 비로소 완전히 과거의 족쇄를 풀고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았다.

이제껏, 4·3노래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은 수면 아래 산재되어 있었다. 이것에 대한 수집과 분석 없이는 4·3문예운동에 대한 완전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특히 노래운동은 문예운동 안에서도 탈각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연구를 지연시켜왔다. 문학이나 미술과 달리 민중가요는 비전문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또한 문예운동 내·외부의 역학관계에서 젊은 문예운동가들에 대한 저평가로 인해 탈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노래운동이 집단감정과 커뮤니티스를 확대시키고, 담론유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노래운동은 재평가 되어져야할 것이다.

2001년 4월 1일 관덕정 광장에서 4·3예술제 일환으로 [반백년의 4·3 10년의 노래(연출자 오영민)]공연이 열렸는데, 여기서는 김순남의 '인민항쟁가', 안치환의 '잠들지 않는 남도', 오영민의 '있었지', 최상돈의 '평화의 섬'까지 4·3노래운동사를 알 수 있는 대표 노래들이 한 자리에서 공연되었다. 이것은 4·3노래운동에서 일련의 계보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2006년 이후에는 제주민예총에서 4·3노래운동과 관련된 아카이브를 실시, 34곡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고 온라인 서비스(<http://www.43artarchives.or.kr/>)를 제한적이거나 시작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도화 이후 4·3사건 관련 노래를 둘러싼

담론 투쟁이 확대되면서, 4·3노래운동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절실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 4·3제주민중항쟁 44주기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4·3제주민중항쟁 44주기 사월제』.
- 41주기 4·3추모제 준비위원회. 1989. 『41주기 4·3추모제』.
- 42주기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 1990. 『4·3 42주기 4월제』.
-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노래패 숨비소리·우리노래연구회). 1990. 『4월 노래발표회: 잠들지 않는 남도』.
-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제주지역 동아리연합회 협의회/8·15통일염원 범민족 축전 우리 땅밟기 대행진 참가동지회). 1990. 『4·3자주항쟁 42주년 추모 한라산등반대회』.
- 제주MBC 라디오 특별기획. 2008. 『1948년 봄의 노래』.
- 김영범. 2004. “기억 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김창남. 1986. 『노래운동론』, 공동체.
- 나간채. 2004. “서장: 문화운동 연구를 위하여”,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나무위키(<https://namu.wiki/>) ‘민중가요’ 편
- 노동은. 1989. 『한국민족음악의 현단계』, 새광음악출판사.
- _____. 1992. 『김순남 그 삶과 예술』, 낭만음악사.
- 노래빛 사월. 1992. 『노래빛 사월 첫 번째 노래한마당 : 4월은...5월은...』.
- _____. 1993. 『노래모음집 : 사월서곡 1948. 4·3』.
- _____. 1994. 『한라산이여 : 4·3노래집』.
- 노래패 숨비소리. 1990. 『숨비소리 노래발표회 : 그날이 올 때까지』.
- 리그베다 위키(<http://rigvedawiki.net>), ‘민중가요’ 편

- 민족제대 사월제 준비위원회. 1991. 『분임토의 자료집 : 4·3제주민중항쟁』.
- 박찬식, 2004. “4·3극과 역사적 기억”.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제1회 제주4·3예술제운영위원회). 1994. 『제1회 제주4·3예술제』.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1995. 『47주기 제2회 4·3예술제 : 섬의 하나됨을 위하여』.
- _____. 1996. 『48주기 제3회 제주4·3예술제 : 섬이여 4월의 하늘이여』.
- _____. 1999. 『제6회 4·3예술제』.
- _____. 2001. 『2001 제8회 53주기 문화예술제』.
- _____. 2002. 『2002 4·3 54주년/다랑쉬굴 유골 발굴 10주년 기념 문화예술제 : 들꽃이 피는 사월에』.
- _____. 2003. 『제10회 4·3문화예술제 : 해원상생의 흙가슴을 위하여』.
- _____. 2004. 『제11회 4·3문화예술제 : 그 희망의 시작』.
- _____. 2005. 『57주년 4·3문화예술제 : 평화의 대지 위로』.
- _____. 2006. 『제58주년 제13회 4·3문화예술제 : 바람꽃물결로 부화라는 생명들』.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음악위원회. 1997. 『97 사월서곡, 쫓』.
- 성대신문. “오선지에 쓰는 사회, 음악사회학”, 2007년 10월 16일자
- 이영미, 1991, 『민족예술운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 이은나. 2004. “4·3과 음악운동”,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_____. 2006. “4·3의례와 음악”,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 제50주년 제주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 『무자·기축년 역사맞이 해원상생의 큰 굿판』.
- 제민일보. 1995년 4월3일자
- _____. 1996년 4월1일자
- _____. 1998년 4월3일자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1, 전예원.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제주4·3항쟁 45주기 사월제 공동준비위원회. 『제주4·3항쟁 45주기 사월제』.
 제주들꽃농원 들꽃세상 블로그(<http://m.blog.daum.net/sori196>)
 제주문화운동협의회(우리노래연구회). 1989. 『그해 4월, 그리고...』.
 제주문화운동협의회(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1991. 『노래패 섬하나 산하나 첫
 번째 정기공연 : 섬하나 산하나 그리고 노래하나』.
 제주민예총 아카이브(<http://www.43artarchives.or.kr/>)
 제주신문, 1989년 4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2007. 『제주4·
 3 59주년 제14회 4·3문화예술제 : 상생의 바람결을 타고』.
 조선일보, 1989년 4월 4일.
 좌승훈. 2003년 10월 30일. “제주청년문화운동 : 꿈과 희망을 담은 노래운
 동”, 제주투데이.
 티보르크나이프(한독음악학회편), 1999, 『음악사회학 강의』, 세종출판사.
 한겨레신문, 1989년 4월 4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민중가요’ 편
 허정. 2002. 노래운동사(함성자료실(<http://m.cafe.daum.net/hample/>))
 현혜경. 2008. 『제주4·3사건 기념의례의 형성과 구조』, 전남대학교
 Assman, A.(변학수 외 역). 2003.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Alan Swingewood(박형신, 김민규 역). 2016. 『문화사회학이론을 향하여』,
 한울.
 Diane Macdonell(임상훈 역). 2002(1992). 『담론이란 무엇인가(Theories of
 Discourse)』, 한울.
 Johnson. p., 1984, *Marxist aesthetics : The foundations within everyday life for an
 emancipated consciousness*, London : RKP.
 Max Weber(이건용 역). 1993. 『대우학술총서 : 음악사회학』, 민음사.
 Theodor W. Adorno(김방현 역). 1990. 『음악사회학 입문』, 삼호출판사.
 Tia DeNora(정우진 역). 2012. 『아도르노 그 이후』 한길사.
 Turner, V.(박근원 역). 2005. 『의례의 과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투 고 2017.05.22.

심 사 2017.05.30.

확 정 2017.06.22.

ABSTRACT

Social meaning of protest songs on the truth finding of April 3 Jeju uprising

Hyun Hyekyung

(Senior Staff Researcher, Center for Jeju Studies, Jeju Research Institute)

The Korean culture & art movement during the 1980s and 1990s was a platform for discourse relating to the Korean democratization campaign. At the same time, it provided a ground for the mobilization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2000s, researches on the Culture & art movement relating to the 4·3 and 5·18 events were conducted. The role and meaning of the Culture & art movement in the Korean democratization campaign could be examined. Nonetheless, there has been a dearth of research on songs relating to the 4·3 event because of difficulties for collecting data.

During the decade in which the Jeju 4·3 truth investigation campaign was carried out, over 150 pieces of 4·3 related compositions were released. Although they were important for a discourse medium for the truth-seeking movement, their role has not been evaluated. Hence, the present study wished 1) to collect and organize 4·3 related pieces and 2) to analyze discourse and social impact by illuminating the activities of the song movement in the Jeju 4·3 truth investigation campaign. In particular, the status of non-professional practitioners in the age group of 20~30 have cause an under-estimation of their impact, compared with the impact of other discourse media. Nonetheless, by creating song - singers' imaginative communities linking the fast tragic April and the present April, discourse dissemination and the role of deconstruction community (communitas) were stronger than those of other media. Unlike other media, it also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forming a hierarchy of multi layered discourse by using the languages necessary for

major discourses such as rebellion and slaughter.

In conclusion,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and social meaning of the song movement through an analysis of singing movements at the time of the 4·3 truth investigation campaign.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studying the Korean culture & art movement relating to the 4·3 event.

Key Words : April 3 Jeju uprising, 4·3event, protest songs, Truth finding, Culture and Art Movement, Discussion diffusion



KCS I